東亞日報
夕刊
一月十三日（月）
發行所 東亞日報社

蔘茸精
麝仙膏

軍縮會議는事實上決裂?

臨時閣議正式으로 軍縮回訓을決定

廣田外相、回訓을倫敦에發送

◇決裂은時間問題

廣田外相

【東京電話同盟】日本軍縮回訓案은 十一日의 外務、海軍兩當局聯合會議에서 大綱을決定、다시十二日午前十時부터 外務省에서 [illegible] 協議한結果 [illegible] 따라서 午後一時半부터 首相官邸에 臨時閣議를開하고 右訓令案을 附議하야 廣田外相、大角海相으로부터 그內容을 詳細說明한後 會議의經過 及將來의 對策等에 對하야 說明을 加하고 全閣僚異議업시 이를承認決定하엿다 [illegible] 廣田外相으로부터 런던의 日本代表部에 訓電을 發送하엿다

訓令要旨는 [illegible] 長文의것인데 그內容은 左의諸點을 主眼으로한것이다

一、日本政府로서는 日本의 軍縮案을 [illegible] 防止하고 國際平和를 確保하기爲하야 [illegible]

一、英國의 [illegible] 共通最大限 [illegible] 提案은 [illegible]

一、그러나 日本共通最大限協定의 [illegible] 各國代表의 同意를 [illegible]

一、討議結果 五國會議의 [illegible] 英國政府의 [illegible]

[illegible] 日本側에서도 [illegible] 出席시켜도 無妨하다고 認定한다

【東京電話同盟】軍縮全權에 對한 日本政府의 回訓은 十二日午後一時부터 開催된 臨時閣議에서 附議된 結果 [illegible] 二時五十分 散會하엿으므로 岡田首相은 宮中에 參內、御裁可를 仰하야 右訓令案을 即時 永野全權에게 發電하엿다 右訓令案은 如次한 四項으로 되엇다

一、會議의 圓滿한 進行을 期待한다

一、十四日의 第一委員會에 [illegible] 努力하라

一、[illegible] 攻擊的 [illegible] 日本의 根本主張을中心으로 [illegible]

會議決裂되는경우

英米는非公開諸分科會에日本의 옵써버參加를拒絶?

【런던十二日發電通】日本代表는 新訓令이 到着하엿슴에도 不拘하고 依然 會議脫退를 時期의 問題라고하야 結局 옵써버를 參加시킬時期가 到來할것을 豫想하고잇는것에 對하야 英、米方面에서는 如斯한 옵써버는 本會議에 出席은 認定하나 第一委員會其他非公開諸分科會에는 參加를 拒絶할것이라고 主張하고잇다

質的軍縮討議用意

米代表部闡明

【런던十二日發電通】米國代表部에서는 日本代表不出席의 경우에도 質的軍縮을 討議할 意向이 잇다고 十二日正午 非公式으로 [illegible] 明하엿스나 [illegible] 에 對하야는 專門委員會를 開催시키리라는것갓다

海軍會議옵서버를

蘇、기大佐로

【런던十二日發電通】蘇聯政府는 今回 레오아치포·키운스키大佐를 런던駐在 蘇聯大使館附武官兼 海軍會議옵서버로 任命한것이 判明되엇다 勿論 海軍會議는 決裂에 瀕하엿으나 아직 最後의段階에 到着치안하야 [illegible] 日本의 會議脫退도 何時로될는지 알수없으므로 기大佐는 直接 即時 會議에參加하는것은 아니다 日本脫退後는 蘇獨二國를 새로招請하야 英米佛伊를加하야 六國會議를 開催하리라는 議論도 一部에擡頭하고잇는此際 蘇聯政府가 今回特히 右키大佐를 會議의 옵서버로任命한것은 豐富한示唆의 一로 注目된다 그런데 키운스키大佐는 伊太利、希臘의 蘇聯大使館附武官을 勤務하야 手腕을 가진人物이다

伊、和協論擡頭

最近東阿戰線의一般不振으로

問題는何國이斡旋工作?

【제네바十二日發同盟】伊國政府筋에서는 最近 東阿戰線不振의 事實로 보아서 依然 妥協主張을 [illegible] 이 擡頭하고잇다는 風說이 流行하야 一部에는 伊國政府는 和協協議의 意向이 充分하다고 [illegible] 엇다 오직 今日 問題는 何人이和協論을 [illegible] 시작하는것에만 잇는데 英佛兩國은 파리試案을 一蹴하엿다 現在 和協工作에 進出하라고는 생각되지안흐며 伊國政府自體가 提議하는것도 不可能하며 또 예國은 大體和協의意思가없으며 現在대로 問題는 何國이 和協工作의 率先을 할까에잇다

佛國은消極的

對理事會態度

【파리十二日發同盟】二十日부터의 聯盟理事會를 압두고 佛國政府는 伊에紛爭對策을 決定하는 重大時期에 到達하엿는데 파리和協試案流産後의 라발首相의 態度는 이번 理事會의 動向을左右하는 重大要素라고하야 注目을 끌고잇다 라발首相도 現地의 情勢를 收拾하기 로마、런던交渉의 推移에 多大한關心을 하고잇다 大體 今日의形勢로는 政府部內에現狀維持說이 最有力하며 따라서佛國은 和協工作에 努力치안코 但反對로 石油斷交도 主唱치안는 다는態度로써 理事會에 臨하게되리라고 觀測된다

石油斷交案

英態度는消極的!

現狀維持說極有力

【제네바十二日發同盟】來二十日開催되는 第八十九回 聯盟理事會의 切迫과가치 世間의 關心은 [illegible] 伊制裁強化의 石油禁輸案은 [illegible] 의 話題에서 멀어진 對伊制裁強化의 交案을 俎上에 올려노코 白熱的 論議가 反復되엇다고 보인다 이미 原則的으로는 聯盟의 承認을 엇고잇는이만 理事會는 [illegible] 치안흘수는 없는 자못 [illegible] 石油斷交案에 關한 聯盟의 態度를決定하는것은 依然히 英佛의 兩國에 잇슴에는 變함이없다 英國政府는 來十七日이 閣議를 열고 [illegible] 外相의 [illegible] 結果 아마 英國은 石油斷交案[illegible] 主導權을 取치안코 但一般的으로 採決된 경우에는 無條件參加 協力한다는 것에 落着되리라고 觀測된다

來聯盟理事會

何等決定을未定?

伊에紛爭輕視論

【제네바十二日同盟】一月二十日부터 開催되는 聯盟理事會는 對伊 [illegible]

防空法案

今議會에提出

【東京電話同盟】內務、陸軍當局의 防空法案은 今議會에 提出되기로되엇바 이것의實施에 伴한 政府의 豫算은 大體二千萬圓程度이다 그리하야 右豫算은 十二年以後 逐次 支出하기로하고 明年度에는 [illegible] 實行豫算을 편성할터이다

政友態度를보아

議會解散을斷行

政府、最高方針決定

【東京電話同盟】政府는 十二日日曜日임에도 不拘하고 午後一時半부터 臨時閣議를 開하고 런던軍縮日本代表에게 新訓令을 決定한 最後的軍大回訓案을 附議 正式으로決定하엿는데 右軍大會議 散會後 岡田首相을 中心으로 各閣僚가 남어잇어 政友會幹部의 議會內情勢에 關聯하야 諸般協議를 行하고 政府로서 休會終了後 議會에 臨할 最高方針에 關하야 非公式이나마 協議하게되엇다 即 望月遞相、內田鐵相、山崎農相은 政友總務會에서는 大體 休會終了後 劈頭 議院의不信任案을 提出하기로 意見一致 그時期도 아마 政府의施政方針演說終了直後로 되리라고 觀測된다 그러므로 이에 政友會의 全意가 更생치안는限 劈頭 解散은 避할 수없는 不可避인데 斷乎 即時解散하리라고 最高方針을 決定하엿다 但 그時期에對하여는 政友會의 態度가 더 明瞭하게된 경우에 決定하게되엇다 그리고 政府로서는 久萬一 政友會가 不信任案中에 [illegible] 國體明徵問題를 [illegible] 하야 解散의事에 出하지안흘것 [illegible]

昭和會員廿三名

【東京電話同盟】昭和會會員은 二十六名이잇으나 今回 長田秘書、中野兵吉、熊谷五郎門의 三氏가 入會하엿으므로 二十三名으로 되엇다 또 同會에서는 近近 總會를 開하고 正式政治結社屆出의 時期 新黨名等의 政策에 對하야 協議할터이다

回訓案決定後의

大角海相談

【東京電話同盟】海軍軍縮會議日本全權에게준 同訓案 決定의 臨時閣議散會後 大角海相은 官邸에서 如左히 말하엿다

이번訓案도 [illegible] 런던軍縮會議交涉의 [illegible] 決定事實을 그대로 案文을 올리엇으므로 [illegible] 五國會議가 十四日로 延期되엇다 [illegible] 日本의 [illegible] 十四日의 五國會議에서 日本案이 通過되면 會議는 繼續할터이나 現下의 情勢로는 그러케 잘되지안흘것이다 日本案이 通過되지 안흐면 十四日의 會議에서 決裂하게될가 안될가 아직 알수없으나 別로 念慮지안타 그러나 決裂하게되드라도 이것으로 安心되는 것은아니라 여러가지 今後의 對策이 잇어야할것이다

一、十四日의 第一委員會에서는 日本案을 說明하고 [illegible] 軍縮方針으로 日本案을 [illegible] 하게 되는경우에는 이 [illegible] 參加치안흐며 此際도 脫退의 形式을 取치말고 單히 會議에 [illegible] 存續함에 異議업다

一、五國間의 本質的軍縮協定의 成立을 希望하는等 [illegible]

一、런던條約中의 潛水艦 使用制限

（가）商船의武裝制限
（런던條約第十四條）
（나）軍艦讓分條項

伊國의獻金勸誘運動과무首相의得意

【羅馬發同盟】對伊經濟制裁로 말미아마 非常한 經濟的困難을 靜觀하고잇는 伊太利에서는 祖國의 非常時에 際하야 各方面의 獻金勸誘運動이 猛烈하고잇어 一般市民으로부터 國家에 獻納資金團과 其他의 獻納品을 蒐集하고잇다 寫眞은 過般 로마에서 行한市民의 獻納데이에 寄贈된 黃金團의 一部市民의 愛國熱에 感謝演說을하고잇는 무솔리니首相과 폴디나아瑞琪에 對한 獻納品收納所의 光景

廣東省黃代理負傷

救國學生團에게

【廣東十二日發電通】廣東의 救國學生運動은 逐日激化하야 昨十一日夜 省政府教育廳長代理 黃麟書氏는 一暴漢에게 毆打되어 負傷되고 自宅은學生團에게 破壞되다

學生의愛國運動

廣東省內激化形勢

女學生은救國義勇隊를編成

【廣東十二日發電通】廣東學生의 救國運動의 裏面에 共產黨員及社會民衆黨員의 策動잇는것이 判明되엇으므로 省政府는 此等의警戒에努力하고잇는데 學生의 愛國運動에 新名한行動은 激化의形勢에 잇다 西南政務會에서는 七、十一兩日 緊急會議를 開하야 이統制策을協議한結果 廣東省內 中等學校以上의男學生을 義勇隊에 編成하기로決定、省政府及第一集團軍은 [illegible] 部 中山大學의 三校에서 이를 統制하기로되엇다 廣東의 政變이 學生運動을 今後 如何히指導하야 갈는지 今後의注目되는바이다

議會와政黨

立憲政治의考察

（七） 高永煥

獨逸나치스黨의 得勢理由

그리고 또 獨逸로 말하드라도 亦是 世界大戰의結果「戰爭責任國」이라는 罪目下에서 베르사이유條約에 依하야 領土的으로、財政的으로、軍事的으로 非常한制約을받게되어 獨逸은 大戰前 一流의 一等國에서 一落二、三流의 二、三等國처럼 되엇다。그러면 從來 學術的으로던지 國民的訓練으로던지 또는 其他 모든點으로 보아 天下莫能當 이라고 自他가共認하든 獨逸民族으로서 대번에 國際舞臺上에서 劣等國民처럼 下待를 받게되며 또는 一種의 國際的奴隷와같은 差別待遇를 받게될때에 어찌 그들의感情이 憤慨의極에 達치안흘수 잇엇으랴? 더욱이 多年間 巨額의 賠償金을 물게된 나머지에 설상加霜格으로 一九二九年 가을부터 불기시작한 世界的經濟恐慌의 [illegible] 을 맛나게되어 一般國民은 거의다 破產之境에서 헤매게 되엇다。따라서 一般獨逸國民은 獨逸民族으로 하여금 그러케 悲慘한 지경에 빠지게한 根本的原因은 一九一九年의베르사이유條約에 잇다고하야 이 不公平한 베르사이유條約의改訂、即 現狀打破를 絶叫하야 獨逸國內에 瀰漫한 一般國民의 憤慨相은 마치 언제 터질는지 알수없는 活火山의 噴火口처럼 空氣가 매우險惡하엿다。그러므로 히틀러는 이러한 非常時의 情勢를 利用하야

（一）베르사이유條約의改訂
（二）獨逸民族의大同團結

이라는 當時 獨逸民衆의 가장熱望하는 二大 슬로간을 내걸고 猛烈히 活動한 結果 一九三三年 一月三十日에 無難히 獨逸政權을 움켜쥐게 된것이다。

即 히틀러는 一九三三年 一月末 獨逸宰相의 印綬를 차지하게되자 그해三月에는 議會의 立法權을 停止시키고 이것(立法權)을 內閣에 獻與하는 法律案을 可決하는 同時에 共產黨을 비롯하야 各政黨을 餘地없이 彈壓하야 全滅시키고 一九三四年 二月에는 各聯邦政府의 權限까지 도 內閣支配下에 直屬시키고 그 해八月二日 힌덴부룩 大統領의 逝去를 機會삼아 히틀러 自身이 獨逸大統領으로 就任하야 獨逸을 完全히 나치스黨의 獨天下로 맨들고서 무慮없는 獨裁政治를 强行하고 잇는中이다。

一黨獨裁政治의 弱點

이와같이 伊太利의 무솔리니 獨逸의 히틀러는 다가치 自國內외 非常時的 狀態를 利用하야 一黨獨裁의 政權確立에 成功하엿다。그러면 世上에서는 現代의 議會政治、政黨政治의 權威를 이 떠러지지 안흘수없는 根本的缺陷은 잘 說明치못하고 그저 議會政治의 無能에 싫증난 남어지라 獨裁政治가 가장 强力政治인것처럼 誤認하여 追隨하려는 傾向이 近來 新大陸에까지 미치게될 것같다。그러나 獨裁政治는 强力政治로 될수없는 일이다。그리고 獨裁政治에는 모도 所謂 「一國一黨主義」로 나가고 있다。그리하야 形式은 名色 議會(國會)라는것이 잇어서 政黨政治이라하나 그政黨이란것이 暴力과 摔手하고잇는 政黨이므로 眞正한 政黨이라고는 할수없으며 事實대로 專制政治의 一種으로 規定할수밖에없다。伊太利같은나라는 再昨年(一九三四年)法令으로써 下院을 廢止하고 所謂 쿠르포라치오니(組織)의 新立法機關을 組織할때에 이機關은 全國産業을 五十種으로 나누고 그 中에서 資本主、勞働者、職業 階級、科學者等의 四百名 代表者(勿論 파시스트)를 選出시키는 組織이므로 世界政治史上에서 가장 理想的 政治機關인것 처럼 宣傳하얏다。그러나 伊太利의 파쇼政治도 亦是 專制政治임에 틀림없는것은 누구던지 首肯하는 事實일것이다。獨逸의 나치스獨裁나 獨逸이나 다가치 그 國民中 파쇼政治에 不服者가 만히잇는 國民가아니고 무엇이랴? 또는 獨逸의 히틀러가 再昨年八月 힌덴부룩大統領의 逝去를 機會로 스스로 大統領의職權을 兼攝하는 同時에 自己가 大統領과首相을 兼任하는것에對한 可否를 人民投票에 붙이어 (그해 八月十九日) 絶對多數의 贊成을 얻엇다고하나 그때 眞正한 暴力的威嚇이 조금도없이 [illegible] 自由 投票케 하엿다면 그 投票는 反對의 結果를 내엇을는지도 모를것이다。

파쇼政治는一時的反動現象

그러므로 파쇼政治制는 一黨專制의 獨裁國이니 만치 國家의 統一된 形式이므로 對外關係에 있어서는 퍽 强大한것같이 보이나 眞正한 意味로는 決코 國內民衆의 統一된것은 아니다。即 民衆은 暴力的壓迫에 그저 입다물고 하는것뿐이요 決코 政府의 行政에 心服하는것은 아니다。假令 伊太利의例를 들것같으면 파쇼政治以來 民衆의 生活은 世界的經濟恐慌의 餘波로 去益困迫하며、따라서 國家의 財政도 年復年 破綻의 危境으로 기울게되어 파쇼政權의 根抵가 흔들림을 漸次 濃厚하게되기 때문에 人心의 不安을 方向轉換시키려는 一策으로 伊、에戰爭을 비저내게 되엇으나 出征軍人中 가끔 逃亡者가 續出한다는것은 伊國民中 파쇼政治에 不服者가 만히잇는 證據가아니고 무엇이랴? 또는 獨逸의 [illegible] 스스로 大統領의職權을 [illegible] 相을 兼任하는것에 對한 [illegible] 十九日) 絶對多數의 贊成을 [illegible] 眞正한 [illegible] 自由 投票케하엿다면 그 投票는 反對의 結果를 내엇을는지도 모를것이다。近來 그勢力으로 기우는 傾向이 만히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眞正한 人民의 靑賴이 없는것인 만큼 그前途가 洋洋하다고는 到底히 할수없다。무릇 人民이 眞情으로 心服하지안는 政治는 아무리 暴力과 威壓으로써 强行할지라도 그는 實로 一時的 統制에 不過하고 決코 永續性이없는 까닭이다。따라서 파쇼政治는 資本主義第三期의 一時的 變態에 適한 現象이라고 보는것이 가장 安當한 觀察인것같다。

（커트는 蘇聯邦外相 리트비노프）

今日夕刊八面

橫說竪說

▼軍縮에 對한 根本主義에 對立이 되더니 畢竟 英米佛伊를 남기고 日本은 脫退를 決意。▼十三日에 最後의 討論이 잇고、繼續하야 二三回의 會議가 뒤人收拾 [illegible] 잇으리라 하니 ▼어데게 또 急轉이 될는지、예누리 만키가 夜市場과 彷似한 外交舞臺라、아직도 斷定은 早急이러니와 ▼에누리 없다는 永野全權의 言明에 依하야 妥協餘地는 十分 豫言이오 ▼妥協이 無望인지라、缺裂은 不可避요、缺裂이 不可避라면 脫退도 [illegible] ▼於是乎 四國會議의 새로운 舞臺에 [illegible] 을 고을어 六國의 [illegible] 고 ▼日本을 [illegible] 軍縮劇의 再上演을 [illegible] ▼四國의 共同을 미루어 六國의 共同이 成立된다면 日本은 一當六의 孤立的 形勢。▼孤立도 이미 豫期한바이라고 海軍當局의 言明이 잇는지라 새삼스러운 變化가지는 아니려니와 ▼[illegible] 한 結果라 잇기 보다 [illegible] 치 못할것은 不啻이 自明。▼[illegible] 軍縮戰爭보다도 于先 各國國民의 心的武裝과 猜疑와 排他等의 剛利이 [illegible]

[illegible] 新年이되 學窓은 多難之秋。

○

세해도 넘어서 벌서 中卿、世上은 [illegible]

板垣、磯谷兩將北中對策重要協議

【靑島十一日發電通】關東軍參謀副長 板垣少將은 十一日正午 天津에서 飛來하야 同時刻頃 上海에서 入港한 磯谷少將과 同地에서 만나서 北中對策、南京會議等에 對하야 重要協議를하게되엇다

消息

▲洪欣約氏(千代田洋行營業部長) 約二週日 豫定으로 商業視察次 十三日 東京大阪에出張

この會社
この保險

第一큰會社인것。第一優秀한內容을 가지고、第一信賴할수잇는會社인것。保險料는싸고그러고多額의配當을行하고、또優秀寬大한保險約款에 依하야親切한取扱을하는會社。即會社도그提供하는保險도理想的인會社。이것이日本生命입니다。

(營業案內贈呈)

最優한故로써最大하다

日本生命

大阪市東區今橋四丁目

◇銀盤의 一日…今日獎忠壇所見

瑞山에 怪青年 時局標榜코 奪金

三六年危機까지 說明하여 忠南警察、血眼活動

【대전지국전화】 충남 서산(瑞山)에도 시국을 표방한 괴 청년이 나타나서 충남경찰이 눈이둥그래서 활방으로 활동을 개시 하엿다。

피해자는 동군대안면동문리(東門里) 백남규(白南奎)의집에 十三일 새벽 三시三十분경 괴청년이 침입하야 시국을표방하면서 여러가지 가정부녀로서는 알아들을수없는 말을한후 군자금을내라고 요구하엿다고 한다 돈이 없다고 한즉 자기가 스스로 온집안을 뒤저서 현금 五十五원五十전을 들고 다라낫다고한다 피해자가 워낙 정신을사리지못하엿다 하므로 무기를 들고온여부도 알수없다고하며 그가 여러가지 이야기를 한중에는 一九三六년의 위기(危機)에 당할 군사금을 모집하려 다니는것이라는말을 겨우 알어드럿슬뿐이라한다。

충남경찰부에서는 이사건을범상히 보아 넘길수없다하야비상활동을 개시하엿다고 한다

本報號外發行

今曉 某地方에 突發한 某事件으로因하야 今日不再錄號外를發行하엿습니다。

咸興에또火災

【함흥】 화재의 도시 함흥에는 신년벽두부터 화재가비발하야 큰 자그대로 지나간해의 화재도시로의 한흥을 재현시하게하거니와 十一일밤과 十二일아침에 이르기까지 二회의화재가이러나 구역세말을앞든 부내의인심을 불안에떨게하엿다。

◇…十一일 오후七시반경 부내 반룡대정(盤龍台町) 신창기(辛昌基)방에서 발화하야 조선식 가옥 一동을반소하고 八시경에 진화하엿는데 손해는 五十원가량이라하며 발화원인은 목하조사중

◇…十二일 오전八시 五十분경 부내 금정(錦町)제一보교앞 이동춘(李東春)방에서 발화 연통을소실하고 곧진화하엿는데 발화원인은 온돌의과열로 인함인듯하다고 한다。

唐珠洞火災 損害는約千圓

경성부 당주동(唐珠洞)一二八 이왕직 봉상사(奉常司)에 十三일 오전영시十분 불이낫슴을 새벽二시에야 一동一호를 전소하고 겨우 진화하엿다 손해는 약 一천원가량이라고 하는데 불은 방안에서 낫으나 그원인이 자세치 아니하다。

局長、林財務局長、穗積殖產局長、植田鐵道局長、海軍部參謀長、賀田朝鮮商工會議所會頭、韓相龍、吉田鐵道局長、橫田高等法院長、牛島內務局長、有賀殖銀頭取、佐伯朝鮮軍參謀長、富永京畿道知事、竹內咸北知事、西岡地方課長、林田陸軍中佐、福池海軍大佐、山岡技師、坂本事務官、新貝警務課長、北村事務官、鎌田土木課長、畑、增本兩團等

投機鑛業者에鐵槌

四百鑛區許可取消

不健全한經營者를一掃할方針 鑛業令廿九條로適用

황금광시대의 큰여파로 광업권자들에게 사업에 착수 또는 그 기업자의 배제 또는 불건전한 광업의 경영등 그폐해를 제거하기 위하야 총독부식산국에서는 조선광업령제二十九조에 의한 단호한 처치를 내리리라 한다。

그는 작년十二월경에 동령二十九조제一항二호에 의하야 광업권 설정후 반一개년이 지내도록 하등의 사유가없이 그에 착수치아니하고잇는 一천四백十五광구 광업권자들에게 사업에 착수 또는 그 의 미착수의 정당한 사유의 신고를 엄명하엿슨것이다。

그러나 작년말까지 그에 대한 착수계(着手屆) 또는 정당한사유 신고는 전기 一천四백十五건중에서 겨우 七백건에 불과하야 그밖에 四백여건은 아즉 하등의 회답이 없엇다한다。

그리하야 회답없는 四백여광구에 대하여는 전기 광업령二十九조를 적용하야 단호 취소처분을 단행하리라한다。

그같이 취소처분을 받을광구는 상당한 금산지대에서 장래유망시되는 광구도 적지아니하므로 그 의취소처분은 조선광업계에 큰충동을주고잇다고 한다。

全般氣象特報

特報한 注意事項은 全南北、江原、忠南、全南北의沿岸 하엿다。

兵火에집까지燒失코 丐乞떠난三百餘同胞

雪風에떨며男負女戴코故土에 楚山官民、救濟演奏를準備

【초산】 평북초산대안수안현와 차구(岔溝)(朝安縣外岔溝)一대에잇는조선동포들은 토병(土兵)의 출몰이 심하야 여러가지 만주협위를 받고오던중 얼마전에 만주국토벌대 三백여명이 출동하야 그들을 토벌한다고하며 소양차(小陽岔) 고려묘자(高力廟子)피조구(皮條溝)등지로단이면서 조선인의 주택(住宅)을 불질러버리며 인명을살해하므로 그나마일시도 살수가없어수만흔 동포들은 어린아이들등에업고 헐버슨몸에 주린창자를부둥켜쥐고 백설이날리는 벌판에나서서 이곳저곳을 유랑를하엿다는데 그중에외차구에 헤매는三백여동포가 지난달에 외차구조선인민회(朝鮮人民會)에 탄원서(嘆願書)를 제출하고 구제하여 주기를 애원하엿으나 민회역시 구제할도리가없다고 밥하므로 그들三백여명은 부득을흘리며 또다시조선땅을향하고 개걸하며 온다는데 이를정경에동정한 초산(楚山)군헌병대(憲兵隊)와 소방조원(消防組員)들도 오는二十八일부터는 피난민구제연주를 개최하기로 합동중이라한다。 엇재만흔 사람들이므로 몽금부제에도 적지안흔물질이 필요하다는바 一반은 뜨거운동정을에까지발기를바란다한다

을고 나아가는몸으로서 (?)은어며 (?)와 어린동생이잇는데 생계의오족하나인 마부(馬夫)의 수입어치근에 이르러서는 도모지없어 고통으로 지내든중 생활난을 비관하엿슴인지 유서한장없이 죽엄의 길을차젓는바 그와괴로움을 가치하던말한필이남어잇을뿐이라한다

休紙로紙幣맨들어 拾得橫領시켜騙取

射幸心을利用、巧妙한犯罪 兩名은本町署에被捉

신문지와 화토론지 수十장을一원짜리지폐만하게 비여가지고 이를지전뭉치같이 꾸며 길목에떠러처가지고 시골사람을기만하야 금전을사취한 사기범二명이 본정서에 체포되엇다。

시흥군 북면흑석리(始興郡北面黑石里) 변양수(卞陽壽)(二?)와 홍파동(紅把洞)에사는 김창용(金昌龍)(?)은 지난十一일오전 남산공원(南山公園)앞길목에서 공모한후 신문지와 화토론지수十장

貨物自動車가 鄕客을轢殺

◇運轉無免許人의犯行◇ 今朝禮智洞의慘事

十三일 오전九시경 시내 예지동(禮智洞)三백四의二호 앞 길에서 종로(鍾路)四정목 백八十 신탄상(薪炭商) 이진영(李進榮)집에 고용사리로잇는 홍희전(洪喜全)(二?)은 전긔 신탄상에잇는 자가용화물자동차를 운전하야 운행하든중 그반대방향에서 걸어오든 양주군 와부면 율석리(楊州郡瓦阜面栗石里) 이명옥(李明玉)(?)과 충돌하야 이명옥은 현장에서 직사하엿다。 그런데 전기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든 홍희전은 운전면허도없는사람이라 한다。

新編入될邑里는 四月부터町으로改稱

一邑七十六里가百五十七町으로 永登浦、往十里에府出張所新設

오래동안 논의되어오든 경성부행정구역확장안(京城府行政區域擴張案)이 금번에 래四월一일로써실시되리라는것은 누보한바어니와 그계획에 영등포(永登浦)와 왕십리(往十里)두곳에 부출장소(府出張所)를 설치하기로하엿다한다

그런데 경성부에서는 확장안이 총독부에서 심의중이엇으나 그것이 사실에잇어 의심이 여서예년 (?)

과거에 지난十一월부터 현재행정구역을 기준으로 예산을편성하여 온 데 四월一일부터 확장안이 실시되게되엇으므로 이지음 새로이 신편입구역에 관한별개예산(別個豫算)을작성중이라 한다

그리고 경성부는 (?)금정(今井田)정무총감으로부터 회의의 취지설명이 잇고 심의에들어갓다。

市街區域決定次 委員會召集

今日、總督府第一會議室에서 ◇當局首腦部會合

경성、청진、성진등시가지 市街地구역을 설정키위하야 十三일 오전十시반 총독부제一회의실에서 시가지 계획위원회를소집하야 위원、간사등이 회합하야 위원장 금정(今井田)총독 임석하에 각 위원장 今井田政務總監 委員 池田警務局長、井上遞信局長 등이 출석하엿다。

그요항은 경성의 시가지구역결정。청진 시가지구역、가로망(街路網)、도시구성(?)、도시구역정리 지구의결정。 성진시가지구역、가로망、도시구역정리지구의결정。등을 부의하고 겸하야 총독부로부터 수집한부윤면 주민의의견서에 대한 위원의 의견교환이 잇섯는데 이위원회는 금十五일로서 종료할터이라 한다。

그런데 이심시기가 오는 四월一일이므로 그안으로 구체안을맨들아 내노흘터이라 한다。

아울러 이회의에 출석한위원은 다음과 갈다。

통 타협회에서 토의된내용에의하면 경성부에서는 신편입되는 一읍七十六개리를 一읍제으로 개정하야 一백五十七개의 정(町)으로 한다하며 또八천七백七十方리의 행정의완전을 기하기위하야 새로 부안에대한 총독부의심의가 이지음 끝난것으므로 경성부에서는 지난十一일부터 관계당국자와 타협회를개최하야 그에대한 구체안을 세우는중이라 한다。

쌀값이또올라

경성부 공설일용품시장(公設日用品市場)에서는 작十二일을 기하야 각종백미(白米)시세를 一키로에 대하야 五리씩 올렷다。

그결과 백미값은 다마금(多摩錦)특등一키로값은 廿四전 통一등미값은 廿三전 통보통미값은 廿二전五리로 되엇다는데 이번에 올린 원인은 현미값이 계속 앙등하는데잇다한다。

祭基里怪火 損害四千圓

十三일 오전一시十분 경성시외제기리(祭基里)四六 조규호(趙圭鎬)의집에 불이나서 一동一호를전소하엿다。

마침 바람까지 불어서 一시는 부근인가에까지 위협이 잇엇으나 겨우 이집만을 전소하고 二시三十분에 진화하엿다。

손해는 四천여원이라고 하는데 그원인에 도모지 수상한 점이 만히 잇어서 동대문 경찰서에서는 이등(伊藤) 사법주임을 위시하야 사법계형사 전부가 총출동하야 업중조사중인데 혹은 어떤 흑수의 방화나 아닌가 하야 주목된다고 한다。

馬夫自殺 버리없고살수없어

【한천】 평남한천군 한천시(漢川郡漢川市)二백六十五번지 김선호(金善鎬)(?)란 청년은 지난十一일 오후三시경에 줄어되목을매여 자살하엿다 한다。

김청년은 어려운가정을 혼자끄

大邱署活動開始 青、少年大檢擧

某種의赤色秘密結社綻露? 事件은去益擴大?

【대구】 지난十일 새벽부터 대구서 고등계에는 아연 긴장미를 띄우고 긴강(吉岡)고등계주임의 지휘하에 형사대는 각방면으로활동을 개시하고 청년、학생、소년등十여명을 검거하엿고 수명의 유치하고 주야엄중취조를 계속중인데 그내용은 절대로비밀에 부치므로 자세히 알수없으나 들은바에의하면 모종비사의 단서를얻음인듯 하다하여 형사들은 아직도 동분서주하고 잇다는데 사건은 장차어느정도로 확대될는지자못주목중이라고 한다。

金.銀.白金 京城德力 京城府明治町 電話本局 3939 1573 2088 振替京城 234 地方注文 金先科送 代金引換

週刊으로發行 月刊「宗教時報」

장로교기관지로 장로교총회 종교교육부경영의 종교시보(宗教時報)는 종래월간이든바 동교총회부와 면려회의 三부가 련합하야 十四일부터 매주화요일마다 주보로 발행하기로 되엇다고한다。

天氣豫報

京城地方 今夜는 처음은 맑고 나중은 흐리나 따뜻하다。 明日도흐리나 따뜻하다。 京畿道全般 今夜、明日도같다。

十二日 (最高 零下一分 最低 零下十四度六)

十三日 (正午 零下八度七)

옴 一엇지폐만하게 끈어가지고이를 지전뭉치로꾸며 사람이만히왕래하는 길거리에다 떠러처노코는 그옆으로 지내가는사람이 발견하야 이를습득하게 되엇다。

이리하야 그를습득하는 사람에게는 그런귀중품을주서너코 혼자 먹으라고하는것은 법에 위반되는일이라고 협박하야 그런을사취하야먹는일이 한두번이 아니엇다는데지난十一일에도 이와같이 협박하는 남동(南東)(?)이와 면상계리(?)영덕군 상수동의 야三十二원을 사취하엿다 한다。

臺舞의龍登進新

江界北鷹의活躍猛烈 光日에吉河金·源仁李 過經會大技競上氷

朝鮮神宮氷上競技 스피트는 十二日 午前十一時부터 清凉里링크에서行한바 江界北鷹의 活躍猛烈하야 볼만한바잇엇고 特히 少年選手 金河吉君의 目覺한 進境과 新進 劉 順君의 一萬米 優勝은 더욱 土將來가期待되며 平壤의李仁源君은 과연 氷上朝鮮에 敵手없는存在로 異彩를보이고잇다。

그리고 女子部에잇어서 京保崔東珠孃의 獨舞臺는 一點紅의 존在라고 할수잇다。이날 바람이 强하고 前夜의 吹雪로 컨디슌은 險히 나뻐다。(코스는 四百米 세파레트코스)

來二十二、三兩日間 日光에 열리는 全日本選手權大會에는 朝鮮代表로 李仁源、金河吉 兩選手를 派遣키로 決定하엿다。

또 來二月一、二兩日 鴨綠江에열릴 朝鮮滿洲 對抗競技에는 日光에派遣하는 前記 兩選手外에 尹明洙、劉仁順、崔具洙、邊成夏、孫昌鎬、鄭昊彥、白永鎬(光成)等十選手를選定하야 이中에서 希望者가 가게되엿다。

【男子部】

【五百米】(타임레스) 1李仁源(光成)50秒5▲2邊成夏(三務)51秒8▲3尹明洙(江界)53秒▲4崔炅洙(徽文)55秒▲5金河吉(江界)55秒4▲6劉仁順(江界)56秒

【千五百米】(타임레스) 1李仁源(光成)2分18秒▲2尹明洙(江界)2分56秒▲3劉仁順(江界)2分59秒6▲4金河吉(江界)3分 ▲5邊成夏(三務)3分00秒8 ▲6鄭昊彥(京城)3分12秒5 ▲7孫昌鎬(公民)3分13秒6▲8高甲龍(徽文)3分13秒8 ▲9金鶴洙(京城)3分17秒 ▲10宋在鳳(普成)3分22秒 ▲11朴性用3分23秒5 ▲12龍英寬、李鈩鉉(商學)3分24秒 ▲14盧英允(徽文)3分24秒1▲15朴永哲(普成)3分25秒9 ▲16崔明煥(韓成)3分45秒5

【五千米】(오픈코스) 1李仁源(光成)10分20秒9▲2金河吉(江界)10分46秒1▲3劉仁順(江界)10分48秒9▲4邊成夏(三務)11分19秒6 ▲5盧英允(徽文)12分08秒 ▲6孫昌鎬(公民)12分10秒 ▲7金鶴洙(京城)12分13秒▲8高甲龍(徽文) 12分14秒▲9金承濟(三務)12分15秒4▲10金基昱(平安)12分32秒9 ▲11趙成德(徽文)12分53秒▲12宋在鳳(普成)13分09秒

【一萬米】(오픈코스) 1劉仁順(江界)22分45秒▲2金河吉(江界)22分45秒2▲3李仁源(光成) 22分50秒1▲4朴性用22分51秒4▲5邊成夏(三務)22分58秒4▲6金鶴洙(京城)23分44秒7 ▲尹明洙는二十週에 棄權、李仁源은 두번이나 너머젓다。

【二千米릴레이】(타임레스)1江界北鷹팀(金永吉、金河吉、劉仁順、尹明洙) 3分18秒 ▲2徽文팀4分08秒

【女子部】

【五百米】(타임레스) 1崔東珠(京保)1分11秒6▲2前田(龍谷)1分17秒2 ▲3韓寧姬(京女高)1分22秒▲4金炳烈(京女高)1分23秒2▲5金國沃(京女高)1分25秒

【千五百米】(오픈코스) 1崔東珠(京保)3分49秒4 ▲2前田(龍谷)4分12秒1 ▲3鍋川(龍谷) 4分15秒▲金炳烈(京女高)4分35秒7▲5渡邊(龍谷)4分36秒2▲韓貞順(京女高)4分46秒6

【三千米】(오픈코스) 1崔東珠(京保)8分01秒 ▲2前田(龍谷)8分31秒2 ▲3鍋川(龍谷)(?)分(?)秒 ▲4渡邊(龍谷)8分8秒

【二千米릴레이】(타임레스)1龍谷女高A팀(鍋川、金國沃、前田、金炳烈)(?)分(?)秒▲2京城女高A팀▲3京保팀▲4京城女高B팀

아이스하키經過

【準決勝戰】

鐵道 11	(2-0 / 6-0 / 3-0)	0 京城醫專

【決勝戰】

京城帝大 0	(0-0 / 0-0 / 0-1)	1 鐵道

◇寫真은 日光에 出征할 李仁源君과金河吉(中央)、一點紅의崔東珠孃

延專籠球團 今夕凱旋 來十五日夕歡迎會를開催

籠球朝鮮에 萬丈氣焰을 吐하고 凱旋할 全延禧專籠球團 一行은 十三日 午後七時二十五分 京城에歸着하거니와 이歡迎會를 十五日午後六時 明月館에서 朝鮮體育會 朝鮮籠球協會、延禧同門會、Y·M·C·A 四新聞社運動記者團等에 聯合主催로 열터인데 會費는 一圓二十錢씩이다 多數의 出席을 바란다는데 準備關係上 十四日까지 主催團體에 參席與否를 알려 달라고 한다。

평권의得點과 個人別記錄

第十一回全日本學生 氷上競技 스피트는 旣報와 같이 明大가 絕對多數의 大得點으로 優勝하엿는데 明大는 全部 朝鮮學生選手로서 평권部員들이다。

우리選手들의 得點을보면 다음 과갈다。(릴레이는除함)

	500	1500	5000	10000
崔龍振	46?9	2?528	—	—
金永河	—	—	9?1850	20?5820
尹世植	—	—	9?1798	20?5812
安甫熙	47?6	—	—	—
許貴日	未詳	—	—	未詳
張日弘	—	2?4520	—	—
朱鳳德	—	2?4779	—	—

	五百米	千五白	五千米	一萬米	計
崔龍振	6	6	—	—	12
金永河	—	—	5	6	11
尹世植	—	—	6	5	11
安甫熙	5	—	—	—	5
許貴日	3	—	—	2	5
張日弘	—	4	—	—	4
朱鳳德	—	3	—	—	3

關北氷上大會 二十六日淸津서

【淸津】 本報淸津支局主催로第一回關北氷上競技大會를 一月廿六日淸津窯南橋排水路 링크에서 行할터이라고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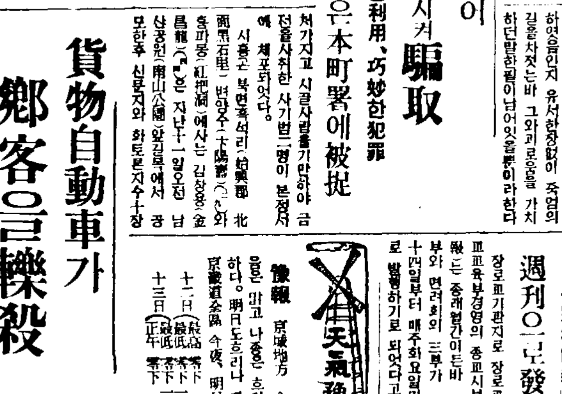
運動界動靜

▲曹明煥君表彰 總督府體育會에서는 前年度各競技部를 通하야 優秀한選手를 詮衡한結果 一月十日 卓球部曹明煥君이 今井田體育會長의 表彰을 받엇다고한다。

▲林寬道氏(江界北鷹氷俱樂部幹部)이번氷上選手를 引率하고入京、武橋町奉三旅館에滯留中

舊歲暮 永興紬特價大賣出 永興紬 三興織 一手販賣 咸興永興邑 三興機業合名會社 電話 二二八一番 振京 三三八一番

京城 金 金銀地金分析賣買 杉山商會 高價買入 京城府明治町 杉山商會 電話二三二番



コロムビア ポータブル 第五五號 ¥25. 本器를試聽하실際에는昭和十年의 三大힛트「船頭可愛や」「夕日は落ちて」「紺屋高」「尾の唄」를걸어보십시오。 昭和十一年一月二百의本器의性能은斯界驚異의的이되어잇읍니다! 總發賣元 株式會社 日本蓄音器商會

漢城銀行

一月十日封切 每日三回 午後一時半 午後六時半 超特別大興行 R、K、O、라디오超大作映畫 미리암·호프킨스 主演 洞窟의女王 R、K、O、라디오超特作映畫 사랑과 희망의 마음의傷處 P、C、L、映畫 人生初年兵 團成社

우리것 태극성광목

好職業 不景氣모르고 하루에 五圓 저절로 버는 職業 見本無料 大阪市天王寺區 東亞社

寫眞 一インチ圓 京都市 (?)

제기판에다 그리코를 노코서 하나 둘 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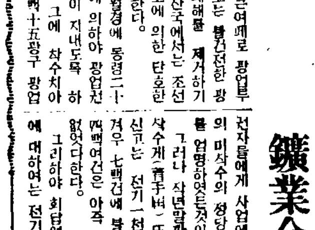
皮膚泌尿 花柳病 醫學博士渡邊晋 京城府本町一丁目

東京消息 調査 興信社

果樹苗木分讓 京城府外 久次米園藝場

醫師試驗準備書 京城東大門外新設町 春秋醫院講義錄 (?)

小兒 肝氣散 어린이들의 간기、경풍、토사、설사、신열 京城 普生堂藥房



大福音 慢性胃腸 病冷病等 病根斷絕 肥滿容易

學藝

最近史上의三丙年

丙寅洋擾史話 (十)

李瑄根

[illegible]

宇宙는無限大

非常한速度로膨脹하야간다

李源喆

[illegible]

人生스켓취 ⑩

失職青年 과구두

崔仁俊

설혹 어떠한 사회에 그가 유행의 첨단을 자랑하는 「已里萬吐」에서 서양사람의 코人냥처럼 코이 뾰족한 구두하거레를 새로 마치엇다고 해도 별로 이상스러울것이 없다. 다만 이상스럽게 보인다면 「失職靑年」인 그가 서울의 거리―종에로 사람의 물결이 무섭게 들끓리는 번화한 복잡스런 本町通의 거리로 그러 바쁠일도 없으면서 남보기엔 아주 분주한것처럼 걸어가는 그것뿐일것이다.

[illegible]

[illegible]

(海)(外)(學)(藝)(뉴)(ー)(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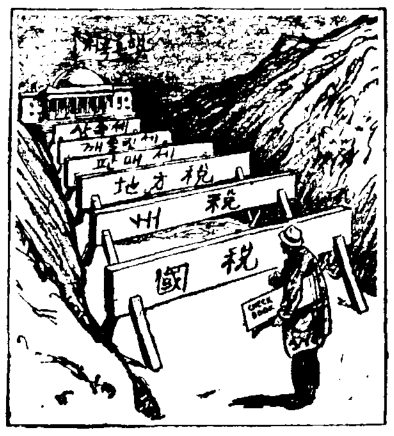
一億年前의蟹의化石

[illegible]

談閑學科

超不死身의男子出現

[illegible]



이런재―기! 이만큼 障害물이 잇서야 타넘노! (뉴―욕월드·텔레그람)

譯英調時

外國漫畵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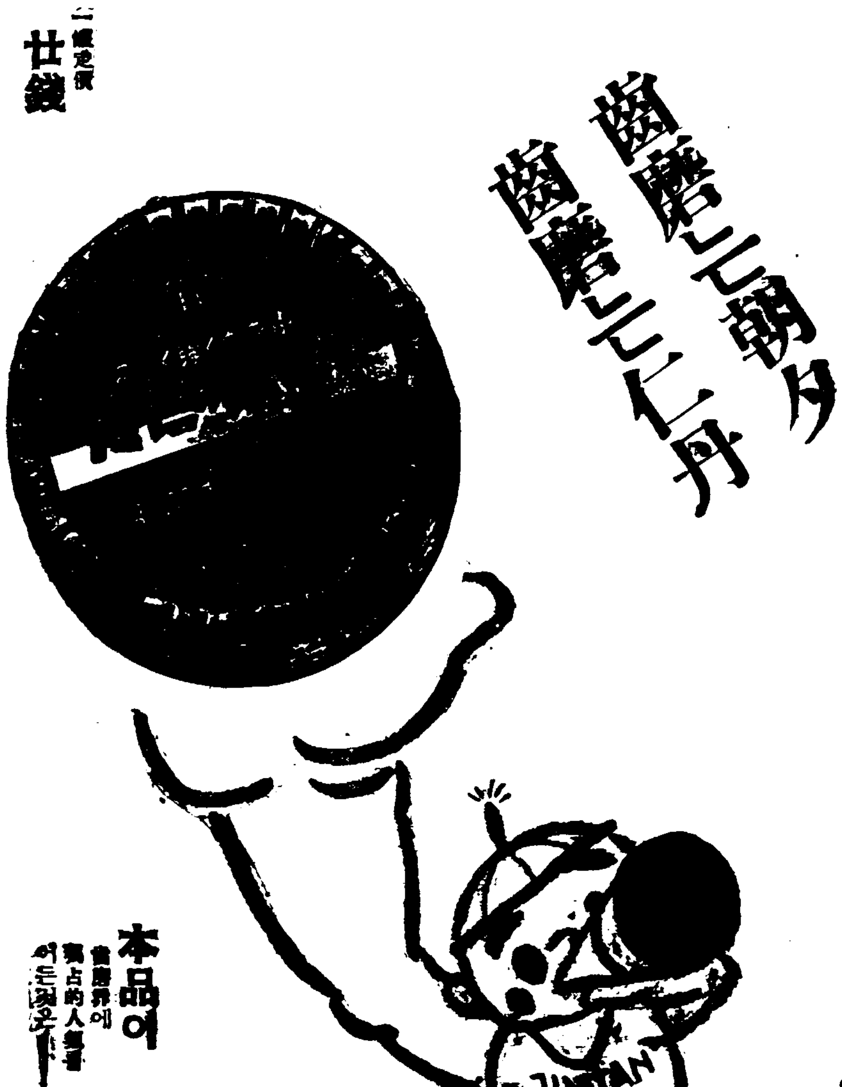
逸石

눈물이眞珠라면 흐르지안케 싸무엇다
十年後오신님을 구실城에 앉히련만
흔적이 아내없으니 그를설어하노라

If tears were pearls and wasted not,
I would them store away and build
With them a castle with a moat
To welcome you, love, when you yield
To my appeal ten years from now,
But with these running drops, O how!

보거든꺽지말고 꺽엇스면 버리지말지
보고꺽고 꺽고버림이 君子의행실인가
무어라 路柳墻花니 누를원망하리오

When flowers you see, you should not cull;
Once culled, you shouldn't them throw away.
To see, to give the clinching pull,
Yet keep them not, is that the way
Of a gentleman? But I shouldn' be sour,
A wayside willow, a wall flow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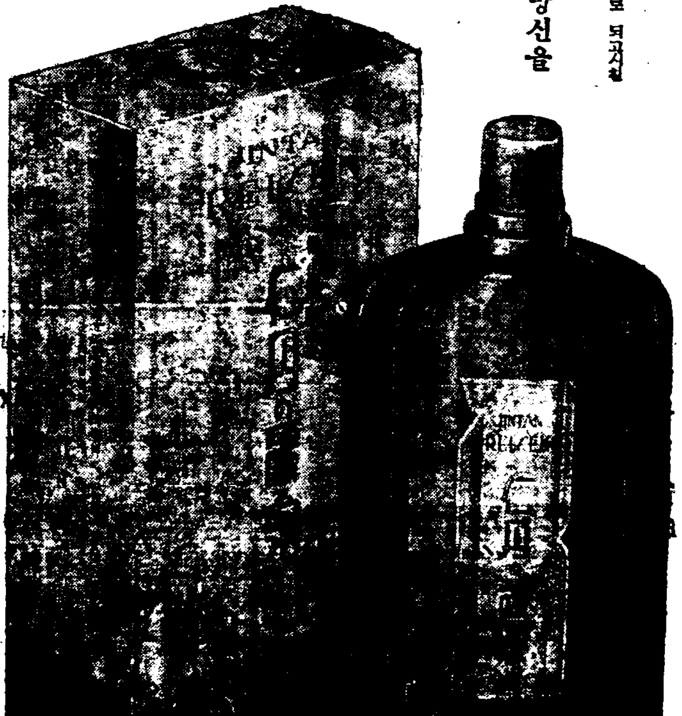
齒磨는朝夕
齒磨는仁丹

一個定價 廿錢

本品이 齒磨界에 獨占的人氣를 어든것은 [illegible]

仁丹の麗泉

너도 나도 할것업시, 려천 려천……하고모두!
金女性사이에 려천……은
새로운化粧과 分離할수업시 되엿습니다
[illegible]
이리하야, 麗泉으로 맨어낸 化粧美는 당신을
훨신 젊듸젊게 빗내줍니다



것친살, 껄은살잔수름
살은 공속가치 집니다
白粉을 어느분의 살결
에나 잘먹게하야 化粧
에 潑溂한光彩를 더나
게합니다

●여드름·헌질때는
데도
●남편의수염깍근뒤
에도

高岡·庄野兩博士發明
土肥·末松兩博士推奨
新皮膚營養專賣特許複應用

一瓶·三〇錢·五〇錢

常備藥仁丹と仁丹齒磨の本舖·森下博營業所

ClibPDF - www.fastio.com

家庭

전기가위험한것은 상식이없는까닭

덮어노코무서워만하지말고 몇가지에만주의하면됩니다

근년에 이르러서는 가가정에서 전기를 쓰는양(量)이 만하저서 단순하게 전등만켜고 잇을때와는 다릅니다. 전동모터가 내립을 따라 전열(電熱)을 갖는 집도잇고 계량기를노코 쓰는집도잇으며 라디오를 노키도하야 여러가지로 전기를 사용하는양이 만하젓습니다.

이러케 편리하고 조흔 전기지만는 거기대한 상식이 부족하야 각금 실수를 하는일이 잇습니다 각가정에서 전기 기구 취급하는 방법이나 배선(配線)에 대한지식을 잇어볼 필요가 잇습니다

습기는절대위험

습기는 제일전기가 통하기쉬운 것으로 전선이나전등이나 전열기구등에 습기를 상케하거나 혹은 저진손이나 뜨거운손으로 만지는것은 위험합니다 또어떤집에서는 전등선에다가 손수건이나 낫수건을 빨아너러말리는데가잇는데 무사히 지내는때도잇을지 모르나 이것은 가장위험한 일로하는것입니다 이런기구를 취급할때는 스윗치 이외의부분은 함부루 만지지 말것입니다.

전선을금속에 접속하지말것

전선을 다른 금속물(金屬物)에 접속시키는것도 사고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것이니 예를들면 선풍을 이리저리 끌다가 선을 그대로 쇠접 못에거는 일이있는데 한무번은 관계없을것이지마는 이것이 계속되어 헤지게되면 위험하게되는것이니 이렇지 안을때는 반드시 단추를 다시해서 접게하도록 하는것입니다.

전등을보재기로 싸는것도위험

계량기가 잇는집에서는 켜고사는이가 없지마는 계랑기없는데서는 켜는새 그대로지면서 너머밝은것을 피하기위하야 보재기로 전등갓을 뚤러싸고 자는것이 많은데 이것을 장시간계속하게되면 열이과해서 [illegible] 하게되는것입니다. 이러한 경에는 이속밖에 안되는 전구(電球)가 잇으니 그것을 써도조코 그러치안흐면 전등을완화하게켜노코자는것은 눈에도시 해로우니 끄고자는것이 제일조흔 방법입니다.

이상이생기거든

전선이나 전기기구에서 불이번적하고 번개같이 이러나거나 또에이상이 잇서는 집안에 잇는 안전개폐기(安全開閉器) [illegible] 제자것입니다. 부엇인지 부근실분은 집어던구서에는 전기불통해 드러오게한 수선빗나는사기기구인데 어떠한위험한 경우에 혹우선이 필때는 이안전기를열어놋는것이 첫재조건 이셋습니다.

그러므로 온집안사람가 누구나 이안전기가 잇는곳을 알아둘것이오또는 놉흔데잇는관계상 서숙에 달린 쇠구리에 노코고런게답이어린애라도 잡아다일수잇게 할필요가잇습니다.

휴쓰대신다른 금속쓰지말것

어떤집에서는지 무리로 대립이나 전기화로를쓰게되면 정해논 전류(電流)이상으로 전기가 통하게되는고로 안전기에 부처논 휴스가 녹아없어지면서 딱하는 소리와함께 불이번쩍나는일이 잇는데 이것을 수선할때는 반드시 전기회사에서쓰는 휴스를쓸것이오 만일 다른 쇠줄로 여러번감어노케되면 전류가 다량으로 통하게되는고로 언제든지 위험한일이잇고야 말것입니다.

이강하게감어논 쇠줄에 과한 전류가통하면서 녹게되면 부서운 불성이가 떨어지는것같고 잘못하면 밝에잇는 공중선에까지 고장이 생기게되는것입니다.

여기비해서는 누구던지 크게주의할것입니다.

정한사용전량을 초과시키지말것

보통집에서 전등선의 사용전류의 양(量)은 五〇〇촉이 정한 한도이니 한수구(受口)에서 이상의전기를 쓰지안토록 주의할것입니다. 예를들면 한전등선에 두밥이나 세밥된 쏘켓트를 써서 전등대워이 화로등을 동시에 쓰는경우에는 이여러가지를 합한화(和)가五〇〇촉을넘게하지말것입니다

서투른수선은 실패하는원인

요컨대 전기라는것은 이것을 사용하는 여러설비가 완전하고 적당한 취급만 하게되면 결코위험한 일이아니오 또고장이 생것을때 서투르게 고친다고 하다가 실패를 보게 말고 전문가에게 부탁 할것 입니다

만일전기에 어름을 쓰다가 이러나는경우에는 반드시 스윗치를 [illegible] 할것입니다.

개의훈련에잇어서는세계제일? [베니스=加州(?)] 라는부인이 열심으로훈련하고 잇는광경

태독은근거 잇는독일까

일종의미신이다

우리조선에서는 해독에대한 설에 흔히 부스럽이난것을 보면 태독이라구 즉시판단을 내리는것이 이 만흡니다. 어떠어린애가 머리 [illegible] 한의가말하는 진단법입니다.

그리하야 이독을 설명하는데는 가장합리적으로 생각되나니 어머니배속에서 애가되기 시작할때부터 오장육부속에 잠복하야 소리도없고 냄새도없는것으로 어머니의 음식물로인하야 되거나 그러치안흐면 아버지가 품행이방정치못한것으로 태내에서 더러운것을 받아먹고 어러나는것으로도 된다하고 혹은 애기낫때 즉시로 입속을 씻어주지안흐면 불결한것을마시고 태독의원인이 된다고하는것이 보통 한의의학설입니다.

이와같은 학설을누구나 잇게되어 어린애가부스럽이 나기시작하면 이피부병은 치료하게되면 내공이된다구 해서 저혼자날때까지 버려두는폐어 만흡니다.

그러나 이학설은 반어야조롬지 아니민어야 조롬지 그것은별문제로하구라도 하여간 퍽하적중명이없는 공상인것은 명백합니다.

선천모든 유전이라는것은 이러가 잇는것이니 그것으로 인하야 질병이나는것은 인정할수 잇는것이지마는 그것이 해독이라구이름지을만한 특별한 목이라구는할수없는것이며 이것을감어고 지식게급에잇는 사람까지 치료를하면 내공이된다구 하는것은 미신이라할수밖에 없는일이오 오히려 그것으로인하야 건강을 상하게한다는것은 유감이라 아니할수없습니다.

가정부인협회 이주년기념식

창립한지 이주년을 마지하는 가정부인협회에서는 지난十一일 오후한시부터 태화관에서 성황으로식을 마치고 재미잇는 여흥으로 네시에 산회하엿습니다

特別論文

女性이가질곳은 (三) 職場이냐 家庭이냐

尹 敬 愼

그러나 今日朝鮮女性이 職場으로갈것이냐? 家庭으로 갈것이냐?하는問題는 決코 女性各自의希求대로 決定될수잇는 簡單한問題는아니다 적어도 社會的條件과 一身上의 環境과 여게各自의希求까지를 包括해가지고서야 決定할수잇는 가벼지안은問題이냐。더욱이 朝鮮의現狀과같이 經濟的條件이 懸殊히 不利한곳에 잇어서는 大部分의 女性이 職場으로찾어가지안흘수없는 宿命을 며메고잇는것이다。以上에서朝鮮女性이 職場이냐?家庭이냐?그 方向을 定하는데잇어서는 적어도 社會的條件과 一身上의環境과 여게 各自의希求를包括해가지고서야 決定되는것이라하엿으나 今日朝鮮女性이 職場을 찾어가지안흘수없는 宿命에에잇어서는「各自의希求」만은 抹殺을當하고마는것이다 이는 朝鮮의經濟的條件이 넘우도 不利하기때문이다。이렇게볼때에는 朝鮮女性이 職場으로 찾어가는것이 被動的으로 또는强制的으로 끌러가는것같은 外觀을 부하게되엇으나 實에잇어서는 오히려 이것이 새敎訓을 받은 朝鮮의新女性의 理想과 合致되는點이없지안흔것이니 朝鮮의 新女性은 自手로 職問題를 解決하지안흐면 안된다는 不利한 環境의 外에 經濟的獨立으로서 女性의 權威를 보여써 男女平等의 實을 擧하고 男女平等의 實을擧하야 써 兩性의 健全한 發展을 圖하고 이밖에도 經濟的으로 家庭에 援助를 與하야 써 家族의 豊裕한生活을 企하라는 學와서 적은理想이 卽 오늘의朝鮮女性이 職場으로 찾어가지안흐면 안되는 不利한 環境과 一致된다는點이다。여기 綠由하야 今日朝鮮의 女性이 職場을찾어가는것은 한 時代的傾向으로 化해버리고말엇고 이 時代的傾向은 女性全般에對해서 한個의 思想이되어버리고말엇다 그럼으로 朝鮮의女性의갈길一方向은 어떠한 動機에서든지 勿論하고 이미 決定된事實이니 여기對해서 더論究할必要는없으리라고생각한다 그러나 問題는 오히려 여기서부터 多端해지는것이니 우리가職場을가고 안가는問題 이런單純한 意味의問題가 問題되는것이아니라 果然 朝鮮의女性이果然 理想하고 目的한것을 職場에서 찾어볼수잇느냐? 없느냐?하는것이 보다 重要性을떤問題이기때문이다。다시말하자면 朝鮮의女性은 職場에서 要求할수잇는것인가?그리하야 家族으로하여금 豊裕한生活을 營爲케할만큼 經濟的援助를 줄수잇을것인가? 하는 初步的目的과 또 職場으로 찾어가면 果然 女性의權威를 보일만큼 堂堂한 經濟的獨立이 될수잇을것이며 그리하야 男女平等의 實을 擧할수가잇고 社會의健全한 發展을 圖할수가잇을것인가? 卽 이러한 女性의理想을 職場에서實現할수잇을것인가?하는問題가더 重大한것이다。

朝鮮에 資本主義가 侵入해온것이 極히 最近에屬하고 따라서 朝鮮의女性이 職業戰線에 뛰어나간것도 아시日淺하다고 할수잇지마는 그동안에 若干의經驗을 우리는 가지고잇는것이다

封建思想에서 아직 버서나지못한 頑固한父老들의 唾棄와 嘲笑는 一身에받어가면서 朝鮮女性이 職業戰線에 果敢히뛰여나간 것까지는 實로 讚嘆해도 조흘일이엇으나不幸히 그들은 職場에서 目的을일러버렷고 理想을 건저내지못하엿다。

「職業女性은 虛榮心이 만타」

「職業女性은 放縱하다」

이러한 世評의 渦中에까지 陷落해버린것이니 勿論 여게는 職業女性各自의 堅固한意志와 淸廉한節操가 없다는것에도 問題된原因이 잇겟으나 보다도「過渡期」라는 時代的不利에서와 資本主義社會의 缺陷에서가 큰原因이엇슬것 이다。

以上의 諸原因에對한 個個의究明을避하면서도 오히려 그原因의 全貌를 總括的으로 寫知할수잇는 煩雜지안흔 方法이 잇는것이니 그는 곧 오늘의 朝鮮女性의 就職狀態의 研究이다。그럼으로 事實을 當時 이方面에 이지안흘수 없게되엇다。

大體로 朝鮮女性의 職業別을세가지로 分類할수가 잇다。

一、純然한 精神勞働에 屬하는假令 學校敎員 銀行會社의 事務員等

二、精神勞働과 肉體勞働을 兼有한 假令 떼파一트걸 電話交換手等

三、純然한 肉體勞働에 屬하는假令製絲 織造 고무工場의 女工等

이外에도 特殊階級에 屬하는 私娼 公娼 酌婦等이잇는것이나 이階級은 特別한研究를 要하는것임으로 더論議하지아니하고 여기서는 오로지 以上의三階級에對한 研究로 끝일것이다。그러나 本論의 主旨가 좀더 新女性의 向方을 決定하자는데 잇는것임으로 以上 第三階級에 屬하는 肉體勞働者는 事實上 圈外로 取扱하지안흘수 없게되엇다。그러고 여기 또한가지問題되는것은 外國과 같이 文化水準이 高度로보이고 잇는곳에서는 以上 第二階級에屬하는精神。肉體勞働을 兼有한 떼파一트걸、電話交換手等은 敎養이 높은 新女性이 찾어일 職場은아니나 朝鮮은 職業種類가 다른諸外國에比하야 乎極히 陝隘한것과 外國에比하야 文化水準이 低俗한 까닭에 이第二階級도 新女性의 職場으로 取扱하지안흘수없게된것이다。

第一回 婦人 **歌鬪와 擲柶의 밤** (第一日 歌鬪 / 第二日 擲柶)

一、時日 一月二十五(土)、六日(日) (舊正月二、三日) 午後五時半부터

一、場所 東亞日報社大講堂

一、會員 每日各百名 (婦人에限함) 一、會費 貳拾錢

一、申請期日 一月二十三日午後四時까지本社庶務部로 (但期限前이라도定員에達하면申請을마감함)

【注意】 歌鬪는漢城圖書本使用。競技規則其他詳細事項은追後發表。

主催 東亞日報社學藝部

時調와競技法

歌鬪의밤을앞두고

본사하에부주최로 오는 一월二十五일(토요)오후다섯시반부터 본사三층대강당에열릴 제일회 부인가루와처사의밤의 첫날인「가루(歌鬪)」의 밤에 사용할 가루는 시내견지동(堅志洞)한성도서주식회사(漢城圖書株式會社)에 발행한시조(時調)노리로 결정하엿는데 미리연습할회원들의 편의를위하야 그시조를 적어보면 다음과같습니다. 그러고 경기법에대하여서도 약간 소개하겟습니다.

時調 (가나다順)

가노라 三角山아 다시보자 漢江水야 故國 山川을 떠나고저 하랴마는 時節이 하수상하니 올동말동 하여라 (金尙憲)

○

가마귀 눈비맞아 희는듯 검노매라 夜光 明月이야 밤인들 어두우라 님향한 一片丹心이야 변할줄이 잇으랴 (朴彭年)

○

가마귀 싸우는곳에 白鷺야 가지마라 성낸 가마귀 흰빛을 새우나니 淸江에 조히씻은몸 더러힐까 하노라 (鄭夢周母堂)

○

간밤에 부던바람 滿庭桃花 다지것다 아이는 비를들고 쓸으러 하는고나 落花ㄴ들 꽃이아니랴 쓸어무삼 하리오 (失名氏)

○

간밤에 불던바람 눈서리 치단말가 落落 長松이 다기울어 지단말가 하물며 못다핀꽃이야 일러무삼 하리오 (兪應孚)

○

간밤에 울던여울 슬피울어 지내여다 이제와 생각하니 님이울어 보내도다 저물이 저스리흐르과저 나도울어 보내리라 (元昊)

○

감장새 작다하고 大鵬아 웃지마라 九萬里 長天에 너도날고 저도나다 두어라 一般飛鳥니 네오제오 다르랴 (李澤)

○

겨울날 다사한볕을 님에게 쪼이과저 봄미나리 살진맛을 님에게 드리과저 님께야 무엇이없으리만 내못잊어 하노라 (鄭澈)

○

孤山에 우는접동 너는어이 우짓는다 너도 날과같이 무슨離別 하엿느냐 아무리 피나게운들 대답이나 잇더냐 (朴孝寬)

○

곶은 무슨일로 피어서 쉬이지고 풀은 어이하여 푸르는듯 누르나니 아마도 변치아닐손 바위뿐인가 하노라 (尹善道)

○

구렁에 나는풀이 봄비에 절로길어 알일도 없으니 기아니 조흘소냐 우리는 너희만못하여 시름겨워 하노라 (李廷煥)

○

구룸이 無心탄말이 아마도 虛浪하다 中天에 떠잇어 任意로 다니면서 구태여 光明한날빛을 덮어무삼 하리오 (李存吾)

○

菊花야 너는어이 三月春風 다지나고 落木 寒天에 네홀로 피엇나니 아마도 傲霜高節은 너뿐인가 하노라 (李鼎輔)

○

꿈에 뵈는님이 信義없다 하건마는 탐탐이 그리울제 꿈아니면 어이보리 저님아 꿈이라말고 자로자로 뵈시소 (明玉)

○

[illegible]에 누웟다가 [illegible] 닭이바다 [illegible] 비켜잡고 玉階를 건너오니 옥화에 맑은물소리를 [illegible] 아랏다 (朴仁老)

○

길아래 [illegible]부처 [illegible] 마주서서 [illegible]서리를 [illegible] 맞을망정 [illegible] 없으니 그[illegible] 하노라 (失名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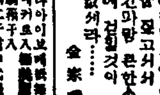
○

나비야 靑山가자 범나비 너도가자 가다가 저물거든 꽃에들어 자고가자 꽃에서 푸대접하거든 잎에서나 쉬고가자 (失名氏)

鷺山 李殷相 / 一松 李秉岐 / 崔永秀 相編 / 畵

時調노리

一名 歌鬪



삭풍은 나무끝에 불고 명월은 눈속에 찬데 만리변성에 일장검 짚고서서 긴파람 큰한소리에 거칠것이 없세라…… 金宗瑞

印刷 [illegible] / 內容 古時調二百首中代表作百首를精選… / 體裁 [illegible]

¥1.20 〒.18

포리타민 **ポリタミン**

體力·精力을爲하야

血液素——筋肉素——發育素

食慾素——活力素

이와가지健康을爲한身体에重要한各種「아미노」酸을豊富히包含한것이世界唯一의高級榮養劑ポリタミン(포리타민)이올시다。

「포리타민」은日本에서처음으로完成된生体榮養劑「아미노」酸(消化蛋白)의綜合劑로一般榮養劑에比하야다음과갓흔特殊作用을가지고잇습니다。

食實이엄시榮養이됨

一般榮養劑의大多數는未消化性임으로胃腸이弱한사람에게는不適當합니다。그러나「포리타민」은消化의必要가업스며그대로吸收되야体成分(血·肉)이됩니다

食慾을도음

食慾과榮養은密接한關係가잇슴으로食慾을害하는榮養劑는소용이업습니다。이点에잇서「포리타민」은食慾을도으며또胃腸의消化力을旺盛케하며便通을순하게합니다。

「호르몬」의근원이됨

体內諸機能을支配하는「호르몬」의몇가지가「포리타민」中의「아미노」酸으로構成되고잇습니다 이것은榮養劑中「포리타민」이가지고잇는가장큰特色의하나이올시다。

身體의抵抗力을强하게함

「포리타민」中의아미노酸은人体細胞力을賦活하야呼吸器病等에걸니기쉬운体質을强化식힙니다。

官公私立大病院處方 四百五十餘名御推奬

小瓶(一五〇瓦)一圓五五 中瓶(二五〇瓦)二圓五〇 大瓶(五〇〇瓦)四圓五〇

發賣元 大阪市東區道修町 株式會社武田長兵衛商店

製造元 大阪市東淀川區[illegible] 大五製藥株式會社

賀正

陽德 / 長水

東陽面各官公署員一同

朴永和商店

片倉株式會社經營 陽德石陽池温泉

尹學潤

温泉面長 金源鍾

東陽金融組合 組合長 孫應俊

平南自動車部 陽德出張所

杏山局 主 金仕[illegible]

永信商會

陽谷自動車部 主 吳[illegible]

大同自動車部 陽德出張所

邑內各官公署 職員一同

朝日洋服店 主 金[illegible]

新興旅館

順德釀造所 主 康盧正守 / 康龍靜

原旅館

平元旅館 主 朴[illegible] / 松[illegible]旅館 主 玉[illegible] / 佳[illegible]旅館 主 崔文[illegible] / 平[illegible]旅館 主 鄭[illegible] / 新[illegible]旅館 主 朴[illegible] / 新興旅館 主 申[illegible] / 新[illegible]旅館 主 金允[illegible] / 昭和旅館 主 孫[illegible]

長水出張所 / 長水煙草耕作組合

長壽酒釀造場 主 [illegible]

李源熙

全承晉

柳鍾[illegible]

金在允

朴[illegible]

李[illegible]

徐[illegible]

朴[illegible]

村島 [illegible]

[illegible]安[illegible]

長水郡廳職員一同

長水公立普通學校職員一同

長水公立尋常小學校職員一同

溪南公立普通學校職員一同

長溪公立普通學校職員一同

長溪公立尋常小學校職員一同

長水郡長水面松川里 衷中欠禮 全炯[illegible]

長水邑內 晉在[illegible]

山西面事務所職員一同

蟠岩面事務所職員一同

天川面事務所職員一同

溪內面事務所職員一同

ClibPDF - www.fastio.com

文化投資의新方面과그具體案

特別論文

科學博物館의設立을提唱함 (三)

李承雨

그러면 上述한바와갓튼 方針을 세우고 우리는 어떠한 範圍와程度로 內容을 充實케함이 가장 適當할가. 科學博物館인以上 科學에關한 모든部門을 網羅하여야할것이다. 그러나 現在 計劃하는 것과갓튼 貧弱한豫算으로는 到底히 그各部門에 對한槪觀에도 接近할수 없음으로 爲先 가장 우리에게 緊要한 關係를가진 理工學方面을 主로하야 그輪廓이라도 解得하게 하고 다른方面은 蒐集되는대로 斷片的으로라도 綜合陳列하되 余韻을 左記와같이 나눈다.

理工學室, 暗室, 綜合室, 研究室, 圖書室, 事務室, 倉庫, 宿直室, 機械室, 器械室, 輪轉室 [illegible]

以上各室에 對하야 內容을 어떠케할가. 다음에 그輪廓을 그려보자. 그러나 여기에는 紙面其他의關係로 各部門에 對하야 緊切한것을 數種式 列擧함에 不過한 것인즉 陳列할때의 事情에따라 省略又는 追加또는 取捨할것이 만흠을 말하여둔다.

一、理工學室

此室은 部門을 十五區로 나누어各區에 左記와같은 物理的陳列한다.

1、物性—力의合成實驗, 重心, 力實驗, 더 [illegible] 實驗裝置 [illegible] 實驗

2、熱—寒暖計, 體溫計, 特殊溫度計, 熱膨脹實驗, 光學高溫計實驗

3、音—共鳴器音付한音叉, 真空內의電鈴實驗裝置, 波動實驗, 共鳴實驗, 風琴及피아노構造, 聲音計

4、光—레ㄴ스及프리즘實驗, 凸面鏡及凹面鏡, 스펙트럼實驗, 분광輪實驗, 偏光實驗

5、磁氣及電氣—羅針과磁石에依한磁力線實驗, 磁石과電流의關係實驗, 發電機及電動機原理實驗, 發電機及電動機實驗, 蓄電器實驗, 電壓과電流實驗, 抵抗實驗

6、電子—뢴트겐管及整流管實驗, 光電管應用實驗, 各種真空管, 水銀整流機實驗

7、電波—發振及受信實驗, 短波長電波測定實驗, 放送實驗, 擴聲器, 라듸오受信裝置

8、電熱電燈—電氣發熱實驗, 各種電燈比較實驗, 各種電燈標本, 火力發電所及水力發電所模型

9、電氣測定—電壓과電流測定實驗, 抵抗測定實驗, 電力測定實驗

10、電氣通信—모—르스印字器實驗, 電話機構造, 自動電話構造及機能實驗, 無線電信送受信機模型, 無線電話送受信機模型, 寫真電送受信裝置模型, 텔레비—손送受影裝置模型

11、汽罐—汽罐模型, 汽機運轉模型, 調速機, 機關車運轉模型

12、內燃機關—內燃機關說明實驗, 磁石發電着火裝置實驗, 小型石油機關

13、喞筒과壓搾空氣—各種喞筒, 各種壓搾機, 送風機

14、船舶—潛水艇—此說明模型, 小型터—빈 實物分解, 商船模型, 軍艦模型, 船渠模型, 汽船의機關室模型

15、航空機—飛行機構造模型, 飛行機模型各種, 飛行船構造模型, 飛行船模型各種, 輕氣球模型, 프로펠러—實驗裝置, 風洞實驗

二、暗室

此室은 名稱과같이 外部에서오는 光線을 全部 遮斷하고 必要에 應하야 特殊한 裝置의 電燈을 使用케 하는것이며 陳列品은 다음과같다.

1、照度試驗裝置, 三原色實驗裝置, 照明實驗, 紫外線實驗, 네온사인實驗, 가이슬레르管實驗, 크루—크스管實驗, X線實驗

三、綜合室

此室은 動物學, 植物學, 地學, 海洋氣象及天文學의 四區에 涉하게 나누되 各部門이 모두 活躍한터이므로 旣記한 程度의 豫算으로는 理一學室과같이 系統을 찾어 具備할수는 없을것이나 動物, 植物의 普通博物館等에서볼수없는 珍標本과 研究에從事할때 必要한 方面을植物의 顯微鏡標本及裝置等을 歸屬하야 가지고 博物學上의 分類와같이 左記順序에依하야 陳列한다.

1、動物學

哺乳類, 鳥類, 爬蟲類, 兩棲類, 魚類, 昆蟲類, 蜘蛛類, 甲殼類, 軟體動物, 扁形動物, 圓形動物, 棘皮動物, 海綿動物, 腔腸動物, 原生動物의 顯微鏡觀察, 共棲生活의 實況

2、植物學

雙子葉植物, 單子葉植物, 松柏類, 公孫樹類, 蘇鐵類, 羊齒類, 蘚苔類, 藻類, 菌類, 地衣類, 細菌類, 葉, 莖, 根等의顯微鏡觀察의系統的備置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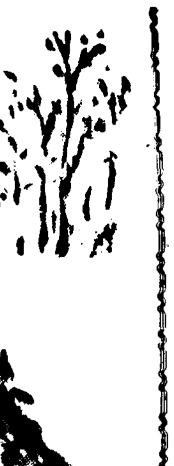
3、地學

各種岩石鑛物標本, 地殼의構造型傾斜機及解剖角器, 各地質時代의化石, 地質時代構造模型, 金屬鑛物及非金屬鑛物의標本, 隕石, 隕鐵, 結晶及結晶構造

4、海洋, 氣象學, 天文學

海底의形狀模型, 各地海底沈澱物, 測深器, 水壓式自記驗潮器, 羅針儀, 驗流器, 採水器, 採泥器, 地震計, 自記風力計, 自記氣壓計, 自記雨量計, 氣象信號旗及用法, 雲의寫眞, 子午儀, 經緯儀, 六分儀, 天體寫眞, 天體望遠鏡, 天體望遠鏡은 特히 屋上에조그마한觀象臺를 만들고 이안에 設備하야 望遠鏡自體의展覽은 勿論이어니와 特定한 時間(夜間)에는天文研究者를 爲하야 開放한다. 勿論係員의 指導하에 使用케할것이다. 望遠鏡의 口徑은 얼마나하든지 適當한가. 클수록 조흔것은 定한일이나 따라서 高價임으로 爲先大口徑의것은 斷念하고도 小額인八인치의 뉴—톤式反射望遠鏡을 備置하고 電動機로돌리는 赤道儀를 붙여서야 할것이며 이外에 具體的 예만 쓰는時計를 附한개 여야 할것이다.

當選文藝特輯 (9)



村先生 (全三幕)

當選戲曲 8 李光來

【禁=無=斷=上=演】

第二幕 (3)

(이때 繼犬들의 사또便道 노리하게가 下手에서부터 上等을 따우고 평매갱이를 치면서 배를 던진다. 玉井이는 웃으며 出入口쪽을지나 上手로 나간다. 玉井이는 대추나무에 기대서서 구경한다. 達根이가 소를 몰고 지나가다가 玉井이를보고 배괴 그 표매를 발어코다)

達根 아 玉井아! 위—위— 이 소야!

(소는 표매에몰려 出入口로 몰어온다)

玉井 소도 오늘은 호사치레를 단단히 햇구나 호호……。

達根 그럼. 농사꾼이나 소는 이때가 한철이지. 해마다 표밭리에 모다 얼마나 고생햇노. 금년엔 인제 안들고 놀라구.

玉井 그래 아버지는 어대가시고 소를 네가 타고 오노?

達根 永鎬이란 맛나서 무슨일인지 아버로 들어 가시더구만.

玉井아—내가 소를타고 잇오니깨 장가가는 새신랑갓이 뵈지? 하하……

너도 오늘은 별로 더 예뻐 뵈는구나. (웃는다)

玉井 아이구태 머슨아도! 저 농을 부리는것 좀봐.

達根 서울말씨나 누가! 소용에서 나려 소를 오양간 가운에 매고 쓸을 한줌 쥐어준다

玉井 그수 참 잘햇연데.

達根 삶이 푸럼무렴 찌지? 안재 우리집에는 이밖에 없으니깨 잘먹이엿에. 그런데 쇠죽은 쑤어줫나 어떠케햇노?

玉井 쇠죽인지 봄죽인지 쑤기는 쑤더니만도 잘을 어떠케나 뉫던지 그만 메주가 됏더라.

達根 재가 그만두어라. 그대로는 예수서어라고 우리소나 반수랑으로 잡언어이게.

玉井 너는 배고파 첫구먼. 그러케 컥둘거리고

達根 배사 고프지만도 그 싱거꼬 야개 나는 김치를 어떠케 또 버어내노.

玉井 아이고 엷서어라! 약내는 무스 약내?

達根 발두렁에 재목 오렵가와 위생한다고 소독약을 뿌렷으깨 그러치뭐. 그려 우리 배추밭을 끄랑싱이 볏단깨. 그 누한 야불들어도 속 그래도 그예만 할 화하인지 위생인지는 버리지안는구먼. 날배운게 되려 원수란깨.

玉井 그래도 아야요 참선생이 잇을젓에는 농사짓는 법을 솔 잘가르켜 주엇깨.

達根 글새말이다. 우리집양반들은 자리를받아는 천정없는들을 때문에야. 참선생이 잇을적에는 농사짓는법 배추 치는법 배추 무 자무는 법 이런것을 가르치고 1년에 몃번가르쳣어. 그때 우리 야야 배는 얼마나 상창을받엇노. 지금은 옥바이지를 불러쓰고잇구먼.

玉井 말하기는 안햇지만 서울선생님이 온뒤부터 하생이 밧삭 줄어가니 무스일고?

達根 그러잇이니가 수를 次는다 손수건을 맨든다 줄시를 짠다. 옷을깨웃이 입어라 할제 그돈이 어대서나오노? 사랍이 먹고 살기도서에 글부터 먼저배우라 던가?

玉井 그래도 그양반들은 큰소리 나하나씩 벌어오게.

玉井。 粉伊엄마가 그러는데 공상에 다니면서 서방질을해서 어린애까지 서답재라고……。

達根。 뭐?

玉井。 그래서 어차피 저의집빗에 다 팔기로 햇다는구먼.

達根。 그 참잘됏다. 아이구 깨소금이야. 서울서울하더니만 에一그놈의 봇서리나는 서울. 粉伊一환양년의 가시나두 서울간다는데 너 안갈래? 어서가서에 나하나씩 벌어오게.

玉井 그래도 아버지가 계시는데.

……만 발랄 치던데.

達根 그래 우리집 서울새댁이는 어대갓노? (모모실 나드리) 갓나?

玉井 웃마을 서울댁이하고 서로 맛장구를치면서 (시골사람은 개돼지 갈다는둥 야단이란둥요란 별……

達根 뭐라고? 제까짓것들이 1래 갈배운 갈봉한거는 뭐고? 父母兄弟가 죽는지 사는지도 모르는 그것들이 무슨 큰소리고. 그래그까짓년의 첩년이나 마수서서…

玉井。 야 그런소리마라。 粉伊엄마가 첩년이라고 하다가 큰코다치뻔햇단깨.

達根。 왜? 암만그래도 永鎬이 첩년이지 재까짓게 뭐꼬.

玉井。 쉬 너 粉伊가 팔려간다는 소문 들엇나?

達根。 아니 금시초문인데。 웨 팔려가?

玉井。 뭐? 머슴아도! (흘겨본다)

達根。 아이구 오지싸다。 그래서?

玉井。 몰라! (도라선다)

達根。 빼졋나 뭐?

玉井。 너무 야속하다야。 내가 언제 서울간다고……

達根。 아니 네가 그런단말이 아니고 이렇네면 그런단말이야。

玉井。 그만뒤。

達根。 제一기 그만 두려무나。 바른말이지 나도 容九처럼 大阪이나 갈까부다。

玉井。 (도라서며) 뭐?

達根。 그 되잖은 서울양반들 등살에 어대 여기서 살겟다고。 정말아니꼬워서도 가버려야지

玉井。 그런 나는……?

達根。 그만두라면서? 시체 아들은 공부만하하고 부자가아니면 시집 안간다면서?

玉井。 머스아도! 粉伊갈은줄 아나뵈

達根。 정말 넌 안그러나?

玉井。 몽。 난 新婚새가나고 말을 서구는 너갈은 농사꾼이좋와。

達根。 나도 질삼하고 누베치는너 갈은 손가스아가 조터라。

玉井 그래? 인제 우리 서로그런만하지마자요?

達根 사실 너하나보고 가고싶어도 못가고 주저하고 잇단다 니 말어먹은 집구석에 썩보구산다 메。

玉井 그래도 아버지가 게시는데。

達根 일급한 서울양반들이 잇는데 무슨 거정고。 잇어봣자 밥수없단케。 容九처럼 떠나고 말갈가지고。 그럴걸 생각하면 아버지가 참불상해。

玉井 글세 말이다。 내 우리집에가 리 하지말란케。 인제 그런소서 떠남은것 잇으면 가저올케 너 여기 잇어응?

達根 아니 떡은 먹고싶지안타。 이왕 가저 올라믄 엿불 김치나 두두룩하게 가저와응?

玉井 머슴아도! 얼루강치가 그러케 먹고십나뵈 (出入口로 나가 下手로退場)

達根 (쇠뚝을안고 한숨을 내쉬며) 제一기 내가 이집에 정든것이라고 이거 한마리뿐이구먼 이마음을 혼솜이 떠나도 봇듯고 울어줄 사람은 玉井이 뿐이지。 그리고 아버지가 맘에 걸려서……。

—幕—

山火 (九)

當選小說 金東里

六

서늘해라도 드물게 따뜻한 날 세나。 차운 소나무에 아침해의 금빛이 퍼젓는다。 「저르렁저르렁」하고 도끼 소리가 산ㅅ골에 울리며 나무 자빠지는 소리가 난다。

아나무 너머간다 어라어라 너머간다

심심산 이후후야 저건너 들러가자

어제버른 무죄도끼에 나무장승이 다너머간다。

송아지가 혼자 나무를지며 노래를 부른다。 그는 또 이런 노래도 부른다。

기럼바른 갈보는 날마다 해도

이웃집 큰애기는 날조하 한다。

그는 금년 수물아홉이다。 작년까지 윤참봉네집에 머슴을 살어 왓섯다。 하야 그들에외는 안팟없이 윤참봉네집에 거이 살지이 일을 하러간다。

이러는 동안에 그의처와 윤참봉네 윤재아들이 남몰래 지나게 되엇는것이다。 어떤 사람은 송아지네가 윤참봉집에 일 하러간 첫날부터 벌서 다른일이 잇엇다느니。 혹은 사흘人재부터라는등 약간 눈치는 진작 알어챗다。 그러나 그집밖에 의지할곳이 없는지라 출입은 끄홈주도없다。 그는 죽으나 금년 겨울만 지나면 내년 봄에 죽드라도 다른데로 떠나려니 햇다。 그의 안해는 일이만하하서 이러

서 금년봄에 사십원을내고 처음 장가란것을 갓다。 나가보다 색시 하나를 사왓다。 처음 그가 그의 안해를 이 뭍스읍에 다려왓을때 마을사람들은 이러케들 말햇다。

「사십원이라 각시 좋네!」

「호 가시나 중년이사 젓구마는!」

혹은

「고것 너무 이뿌다!」

「송아지한테 과한거로!」

제 식구를 가지게되면 살림을 살어야하고 살림을 살려면 재물이나 의지할곳이 잇어야한다。 그러나 송아지는 일즉이 부모를 여이고 부모에 친척도없다。 의지할곳이라고는 그가 이십년이나 가까히 머슴사리를한 윤참봉네 집박

다。 노라하고 종종 밤도 새우고 다닛다。 송아지가 나무레면 「글케 얼른 돈벌어 오라믄 내것 잇으믄 나도 앗어 먹게」 하고 맨글等 해진다。 송아지는 팽이나서 두어번 뚜드려 주기도햇다。 그러다가도 에고지고 부어에앉어 우는것을 보면 그만 밝으로 술그머니 나와버린다。 어제밤에도 그는 혼자 삿다。 방구석에는 평시보다 좀 정한 저녁상과 오늘 아침먹을 밥까지 두어젓엇다。 제딴마따나 소위 밥달이 잇을때는 저녁에와서 이러케 미리 밥상을 준비하야 두고 갓다。

한쇠는 송아지를보고 소리룻질렷다。

「송아지 아저시!」

송아지는 도끼를 멈추고 서서 빙그레 웃는다。

한쇠가 가까히가서 뭇으니

「인저 한 수무나믄집 혓지러」

하며 입을 송아지처럼 벌리고 웃는다。 여러해 남의집 고용살고나도 그다지 째갈러 뵈지안코 어대지 송아지처럼 점고 싱싱코 단순하여서 송아지란 별명까지인게되엇다。 그의 제일 친한말동무는 한쇠요 한쇠에게서 송아지를 제일 믿어워한다。

「물을 바앗는표?」

「어제 새벽에!」

「그러면 오늘 우리술 좀 뭍어주소」

「아빼는?」

「아빼는 불만보믄 눈물와 찔찔 싸다잔단요」

엉엉히 두사람은 마주보고 서 잇다가

「오레 불을보믄 모도 그런갑데」

저얀에 계뽕아빼도 보니 사실 눈물만 찔찔 흘리자마자 한다。 후후…」

하고 웃으며 송아지는 도끼를 메고 한쇠뒤를따라나선다。

「허人간에 숨 다나갓나?」

한쇠네 술집앞에 와서 도끼를 노으며 송아지는 이러케 묻는다。

「예 어제께 아빠가 마저 저낫네요」

한쇠는 허人간에서 길다란 쇠갈키와 수굼포를 가지고나온다。 송아지는 술집에 불을 드러다 보며

「아직 멋잔나!」

하든니 앉어서 저고리 섭을을 시고 배쌍지를 꼬낸다。 한쇠가 수굼포를 그에게주며

「아저씨랑 휴면어주소 내고 벌게」

하고 갈키를 들고나서니

「한대 푸고 시컨이하자구나」

송아지는 담배人대를 들고 앉엇다。

禁無斷撮影 黃昏 (三씨운드版)

當選씨나리오 ● 朴民天

人物

1 아버지
1의 어머니 鄭氏
點淑 그의 누의동생
順女
順女의 아버지
巡査
其他 洞里사람들多數
9 九
1 할아범
2 牧童多數
3 나무배사공
4 農夫多數
5 少女多數

=농촌의 아츰 (溶明)

—할아범이 봉에다 쇠를 느리고 소구리를 미엿다。 뒤니리로 긴바다의 개똥쇠통을 수이며 지나간다。

—아침나린 쓸만 긴솔을 지게진 흰옷이니가 지나간다。

—뭇 개들이 농가농에서 짓고잇다。

—개골 이세세 보이는 안아대의 언덕。

—바로는것이 따서운 쇠때문에 들러거린다。 (大寫)

—소녀는 소녀를 바구니와 호미, 칼 들을 쥐고 뒤룩지어 들로나간다。

—이은보리밭。

—보리밭 비여나가는 사람들。

—보리를 지게에다 져고오는사람 (溶暗)

노래소리

=언덕우。

—지게人발을 두다리며 노래를부른다。

—고개를 넘어서는 초동들—

—고개。 (溶暗)

—태양과 숨쉬는 나무통。

—순녀와 석구의 다리가 잔디우에 나란히 뻣고잇다。

=언덕길。 (溶明)

—성구 지게에다 거름을 지고온다。

—순녀 뒤에서 소리를 친다。

—(字幕) 성구야 장에 간다드니 웨 안갈래냐。

—성구 지게를 내려세운다。

—(字幕) 안가기는 왜안가 너처럼 거짓말할줄아니。

—순녀 성구의곁으로 걸어와 쌩긋 웃으며 안는다。

—(字幕) 염랑 안접어 준다고 그러니 누가 요새사람이 염랑 찬다니 촌사람 티껄라고。

—성구 순녀의 명기를 잡아땡긴다。

—순녀 성구의 손을 탁친다。

—성구 순녀를 본다。

—(字幕) 순녀야 참말 이지 염랑은 그만뒤라 염랑이 차고싶어서 그런것이 아니야。

—순녀 성구를 결눈으로 힐끔 본다。

—(字幕) 나도 안단다 아……

—순녀와 성구 마조치어다 보다가 두사람 웃는다。 한참 웃다가 뒤로 넘어저 헌는다。

—조금잇다 일어나며 붇이서 풀을뽑아 풀싸움을 한다。

—성구의 미소하는얼굴。 (大寫)

—순녀의 방시이웃는얼굴。 (大寫)

—두사람 풀싸옴을한다。 (大寫)

—순녀 한참하다가 깔깔대고 웃으며。

—(字幕) 내가이것다。 성구야지게를저라

—성구도 덩다라 웃는다。 조금잇다가 그럼지게를 질머질가하고 지게를진다。

—지게를 짊머지고는 순녀와 헤여지기 실은듯이 물끄럼이 한참동안 잇다。

—(字幕) 그럼갈가—순녀 저대노코 장에가야되겟다!

—순녀의 섭섭해 하는얼굴。

—순녀。

—(字幕) 참말 로갈려니。

—성구。 빙긋이웃고

—순녀。 깔깔하고 웃으며

—(字幕) 풀싸움에졋으니 가야지

—(字幕) 너 머신이하고 콧소리를 방방

하는구나

—성구 어지로 우슴을 쳐는다。

—순녀 호미를 들고 작난으로 땅을 판다。

—성구 지게를 다시 옷죽 치켜뫼며。

—(字幕) 큰소리? 웨 못갈줄아나……

—순녀 성구가 지게를지고 가는것을 외면한간에 잔디에서 일어서며 밭속으로 뭇아간다。

—동리의 두사람 손등에 보리를 실고 옆길에서 나오며 성구의 뒤를 쫏아간다。

—성구는 아직도 순녀가 따라오는줄 알고 보냐는듯이 성큼성큼 걸어간다。

—얼마를 다림질 하여오는 순녀 나무그늘에와서 서며 이쉽고보고 입에다 손을 갖다대고 후후하고 웃는다。

—성구 한참가다가 그제야 도라보니 뒤에 동리사람이 딸아오고 순녀 보이지 안음에 놀랜다。

—동리사람 성구에게

—(字幕) 거룸 내는가

—성구 머뭇머뭇하다가 고개를 끄덕한다。

—순녀 언덕우에 올라선다。

—성구 이제야 순녀를보앗다。

—순녀 성구의 겯으로 쫏차간다。

—두사람 손을잡고 웃는다。

—(字幕) 참 너 장에 갓다 와야헌대지

—성구 순녀의 손을노며。

—(字幕) 그대신 장에갈때 좀뿔리것지。

—두사람 서로보고 웃는다。

—순녀 성구의지게를 떠밧처준다。

—성구 지게를지고 일어선다。

—두사람 가치 걸어간다。

—순녀 밭속으로 들어가 때트림을한다。

—순녀 손을 흔들며 어서다녀오라고하니 까성구는 고개를 끄덕이고 자주뒤를 도라보며 걸어간다。 (溶暗)

—(以下次號)—

撮影—大邱鄕人撮影所

希望의 新春 [illegible] 【컬럼비아映畫】 [illegible]와明朗한리듬에 쌔치어서 「펠릭스—暴風」[illegible]라고하는 [illegible]미누라는 [illegible]에서도 [illegible]・파이멈스의 主要分子。 [illegible]하야公衆을 알두고 [illegible]・[illegible]의 [illegible] 하고잇는것。

新春文藝當選者紹介 ⑥

民謠「望鄕曲」 (當選) 金鍾漢

一名 乙民。 二十二歲 咸北明川郡立石川生。 鏡城高普卒業後 東京日本大學中途退學。 岸曙의 知遇를받아 詩歌創作에다시 立志하엿다고。 新興民謠樹立과小曲詩論에 努力中이라고 [illegible]。

不日 [illegible]

漢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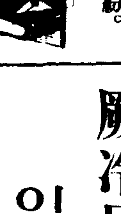
紫白散人選

鶴 (押韻) 入選 宣川郡水淸面古邑洞 李學乙

衣縞裳玄織錦紋、
孤高品格出乎群。
橫飛靑海中分水、
直向檮山半劃雲。
華柱歸來誰有識、
蘭巖化去史無聞。
安能乘彼遊塵外、
脫却人間巢累紛。

評曰。 全篇 [illegible]

新刊紹介



▲世界特選童話集 (田榮澤著) 定價六十錢 發行所京城西大門外國里一〇八番 [illegible]社 振替京城七〇八九番 販賣所京城 漢城圖書會社 振替京城七六六○番

▲文學創刊號 菊版 [illegible] 文學의哲學、文學의基本主義 외 農民文學의要諦、附作家와一問一答 [illegible]等 定價十五錢 發行所京城府大島町四〇 文學社 總販賣店京城府寬勳町 三文社書店 振替京城九七五六番

▲國華新年號 定價二十錢 發行所京城府初音町二〇〇 時報社 振替京城一二四五〇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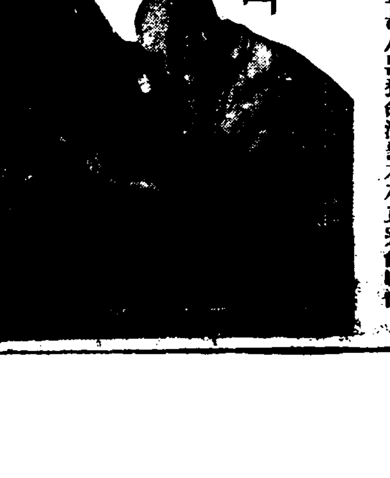
冷해서추워하는祖母님께

第一반가운膳物

생각하면昨年녀름나는 非常허身體가弱해서、頭腦가 [illegible]하고、몸이困하고、胃腸도弱해지시몸이瘦瘠하고、不眠으로神經衰弱이甚해저서、여러가지加療도하엿지마는 좀처럼낫지아니하고、醫師로부터、몸이衰弱하엿스니 養命酒가조흐리라하야먹기始作하엿더니、어쩌지몸이속으로부터 나날이 氣力이생기고、頭腦도分明해저서元氣가나고根氣도强해저、지금에는이러케튼튼히살이쩌서實로기뿌기짝이업읍니다 나는이러케조흔것은없다고생각하고、故鄕의祖母님께보내드렷더니、[illegible]味에適合하야、十年이나젊어진것처럼튼튼해저서 요지음처럼도例事로元氣조케지낸다는消息을듯고、今次歸省하는때의膳物도第一몸에有益하고반가워하시는養命酒를가지고왓슴니다。

足腰部의 厥冷도 잇고 에구반가워라 이것을먹엇더니

이나이에이러케튼튼하고 숨도안차고元氣조케 孫子더리고재롱봅니다



孫 子처럼귀여운것은없다 東京에간뒤로、無事히 지내나하고걱정하엿더니도리혀、내가나이먹어衰弱하야것을念慮하야 養生으로떠으라고、養命酒를보내 주엇읍니다。養命酒를一精이라기에、예서朝夕에조금씩먹고잇엇더니 날果가잇어서주름투성이든나의몸에 에거름을준것처럼、얼는눈에보이도록效 果가잇어서주름투성이든나의몸에

血 液의流通이잘되고 手足의끝까지포근포근하야 活氣가나고구부러젓든허리도펴지 며더리가든든해저서 몸에힘이생기 고숨이찬것도없어저서、뭇가벼게 家事를도와도 疲困하는일이없읍 니다、언제나

冬 節이되면、手足이 차고 서늘하여도 옷을 두텁게하여도 몸마다 바스스해지고 寒氣가들어 기침이나고、때때로 배도 나다가아 픈데、더니수年겨울에는、養命酒를 먹 고서조금도차운줄모르고보냅니 다。大單어서、어렵고두려운 것도모르고 寒氣에 몸이 상하지 안읍니다、몸이튼튼하여

長 生하는本草가잇드니 정말로 조하서 世上에는조 흔것도잇다하고、家內一同이 經驗하 고잇읍니다。日日예도이주 몸이 좋아 할머니는茶처어 따끈한것을 가 지요。

貴 [illegible] 서 [illegible]

小瓶進呈
[illegible]

◆貧血冷病잇는분
◆胃腸衰弱한분
◆强腦强精의目的
◆神經衰弱잇는분
◆不眠숨갑분사람
◆呼吸器弱한사람
◆疲勞倦怠한사람
◆根氣薄弱한사람
◆虛弱體質가진분
◆産前産後의婦人
◆病後衰弱 [illegible]

信州伊那の谷名産 製法日米專賣特許

靈藥家傳 養命酒

◉全國有名藥店、百貨店、食料品店에잇읍니다

[illegible] 養命酒本舖天龍館 [illegible] 養命酒本舖出張所

注意 [illegible]

常綠樹 (101)

沈熏 作 · 靑田 畵

반여의불길 (4)

그동안 기천이는 장근 [illegible]나 출입 못하고 누어잇섯다. 병을 앓은것이 아니라 타향에 나가서 양반자세를 하다가 임자를 톡톡이 만나서 [illegible] 갈빗대 세어지고 가슴에 멍이 들어서 출입못하고 누어서 [illegible] 하엿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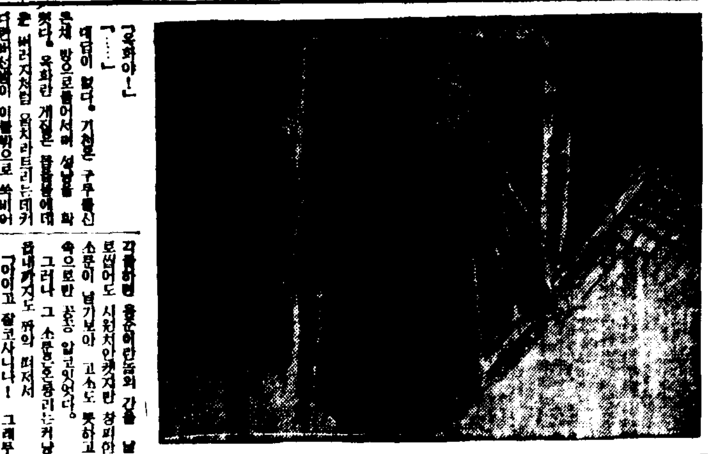
회정에 한 첫번 행세를 하려고 (세상리서는뭣세도)저도 [illegible] 버나 기부를 한 읍내소방조 출초식(消防組出初式)에 참례를 햇다가 술이 어명정정으로 취해서 [illegible]중에 자전거를 끌고 오다가 신작로 가에 잇는 주막으로 비틀거리며 들어갓다. 계집이라면 회를치며끄트는 기천은 그 주막갈보의 [illegible]하엿다. 술김에더욱 [illegible] 기천은 제가 말어논계집이라 기침도 아니하고방문을 벌석열엇다. 허술하게 발은 문풍지가 떨어지면서 문은 덜커덕열렷다. 방안은 컴컴하다.

「너 요놈의새끼! 네놈의집 버슬사리 三년에 사경두 다 못찻어먹구 네게 얻어맞구 쫓겨난 내다. 어디 너좀 견듸바라」

하고 마른장작이를 장작개비로 제고 발딱 잡버트려 놋코는 발킷것치로 가심을 사뭇짓 밟엇다. 기천은 말 한마디 못하고는 쌕! 쌕!거리며 죽도록 얻어맞는것을 계집이 버선발로 뛰어 나려가서 간신히 뜯어말렷다. 용운이는 三대째 강도사네 행낭사리를하다가 언사가 불공하다고 기천에게 직배기 [illegible]하고 쫓겨나서, 그 [illegible] 범큰논판에 호되게 걸려 들엇든것이다.

기천은 아주 초죽엄이 되엇다가 새벽녘에야 간신히 저의 집으로기어들엇다. 머슴들에게 언어맞엇다기는 창피해서

「취중에 자전거를 타다가 이봉변을 당햇다」고 꾸며대고 ―산깔을 케여오너라 약쑥지어오너라 하고 야단법석을 하엿다. 분한생



「옥화야!」

「……」

대답이 없다. 기천은 구두를신은채 방으로들어서며 성냥을 확 켯다. 옥화란 계집은 방구석에데굴 버러지처럼 옹치리트리는데 키다란버선발이 이불밖으로 쏙비어저나왓다. 동시에 [illegible] 기천의 눈에는 질투의 불길이 타올랏다.

「누구냐인」

소리를 바락 질르며 이불을 펵 벗겻다.

「이놈아, 넌 누구냐?」

갑재가 사납게 생긴 사내놈 벌떡 일어낫다. 기천은 그자의 얼굴을 보고

「이쭉 너 용운이 아니냐? [illegible] 같으니라구 네이놈 양반을 몰라보구……내가 [illegible]는 집인줄 뻔히 알면서……이 죽일놈 같으니」

기천의 구두人발길은 대뜸 용운이라고 불리운 사내의 허구리를 걷어찻다. 그다음 순간, 기천의 눈에서는 번갯불이 번쩍하엿다. 따귀를 한대 되게 얻어 맞고 정신이 앗득해서 쓸어지려는것을 그 악상스러히 생긴사내는

「요놈아, 술파는 계집애정 다 네계집이냐? 타동에 와서부 양반행세를 해? 너 요놈, 의법이 아따가 불김질을 허는거냐?」

하고 호통을 하더니

「아무튼 잘만낫다. 양반의 때다기엔 때가 웟가?」

하고 기천의 미상을 바싸 추켜잡고 컴컴한 마당으로 끌고나가더니

각을하면 용운이란놈의 간을 날로씹어도 시원치안캣지만 창피한 소문이 넘기보아 고소도 못하고 속으로만 끙끙 앓고잇엇다.

그러나 그 소문은 온통리는커냥 읍내까지도 짜하게 퍼저서

「아이고 잘코사니나! 그래무배다귀는 추엇다나?」

하고 고소해서들 하는 소리를 저혼자만 못듣고 잇엇다.

그러다가 면역소의 지휘로 음력 대보름날을 기회삼아 한말리 진흥회의 발회식을 열게 되엇다. 평을 걸러 윷노리를 하게되엇는데,

그때까지도 감진이와 풍화는 회관의 열쇠를 내노치 안엇다. 발회식만 될테니 임시로 빌려답라고 기천이가 사람을 즐덥어 보내도

「우리는 제루 지어노쿠 어데서 들어보질 못햇는데 어느놈이 게시를 허느냐」

고 쌀쌀히 버티엇다. 기천이가 읍내로 장거리로 쏠아다니며 「우리 한꼬리 진흥회관한은 미상을 다른동리 부럽지안케 미리지어놧다」고 제손으로 짓기나 한것처럼 뿌여게 생색을 내는것이 괘씸어 죽이고 싶도록 얄미웟든것이다.

집에서 형제가 가마니를 치고 잇든 봉학은 풍화이 손을 쉬고눈을 딱 감고는 대세를 살펴보앗다.

(허ー 이러다간 큰일 나겟군。 양단간에 귀정을 지어야지)

하고는

「예 풍화야!」

하고 아우를 넘지어 불럿다.

라디오

一月十三日 (月)

▼六時 라디오世界一週(續行) 講話 (一) 金道秉
▼六時二十五分 經濟解說 洪性夏
▼七時 뉴ー스・天氣豫報・趣味紹介 李晶燮
▼七時三分 趣味講演 [illegible] 李英子
▼八時 [illegible]歌外 (一)[illegible]歌 (二)[illegible] (三)[illegible]歌 (四)자진매다리이 (五)노래가락 (六)唱夫打鈴
▼八時三十分 (東) 管絃樂 近代의 [illegible] 第一回 舞踊組曲 발ー로作曲 (一)모데라ー토 (二)알레그로 (三)알레그로 (四)[illegible] (五)코모ー도 (六)[illegible]알레그로
[illegible] 指揮 [illegible] 解說 太田太郞
▼九時 唱劇 (一)好歌 아서라 세상사 (二)唱劇 水宮歌 [illegible] 吳[illegible] [illegible]九
▼九十三十分 (東) 時報 뉴ー스・氣象通報 翌日프로・뉴ー스再放送

一月十四日 (火)

▼午前七時五十分(東) 라디오體操 第一(放送에依함)
▼十時三十分 氣象通報、料理法
▼正午(東) 時報 日用品時勢
▼午後零時五分 俗曲(一)念佛네가지 念佛도도리 허튼念佛 山念佛 자진念佛 (二)아리랑네가지 아리랑 密陽아리랑 江原道아리랑 咸鏡道아리랑 [illegible]九
▼零時四十分 뉴ー스
▼三時十五分 兒童講座(二) 食物의消化 [illegible] 金[illegible]
▼四時 뉴ー스
▼六時 라디오世界一週續行 講話(二) 金道秉
▼六時二十五分 經濟解說 [illegible]
▼七時 뉴ー스・天氣豫報・趣味紹介
▼七時三十分 [illegible] 金[illegible]
▼八時 平時調外 (一)平時調 (二)男唱지름 (三)장대 고자(四)[illegible] (五)小春香歌 (六)개타령 [illegible]
▼八時三十分 映畫이야기 支那海 李承[illegible]
▼九時 歌謠 (一)白鷗詞 (二)[illegible] 李月色 金鳳仙 大鼓 金永根
▼九時三十分 (東) 時報・뉴ー스 氣象通報・翌日順序・뉴ー스再放送

第一放送(東京)

▲午前七時三十分(東)朝の修養[illegible]▲八時十分今日の天氣見込▲九時(東)衛生メモ▲九時十五分料理獻立▲十時三十分(東)家庭講座 育兒十二ケ月[illegible]▲正午(東)時報日用品値段▲午後零時五分(東)[illegible]▲二時家庭講座[illegible]▲三時十五分[illegible]の消化[illegible]▲[illegible]▲六時(東)ラヂオスケッチ[illegible]▲六時二十分(東)コドモの新聞▲六時二十五分[illegible]▲六時四十五分(東)農村[illegible]▲七時三十分(東)講演[illegible]▲八時(東)[illegible]▲八時二十分[illegible]▲八時五十分(東)[illegible]▲九時三十分(東)時報ニユース

登錄商標

龍角散

롱 각 산

特長은治療가速하고、變症防止、中毒性의근심업고、香味爽快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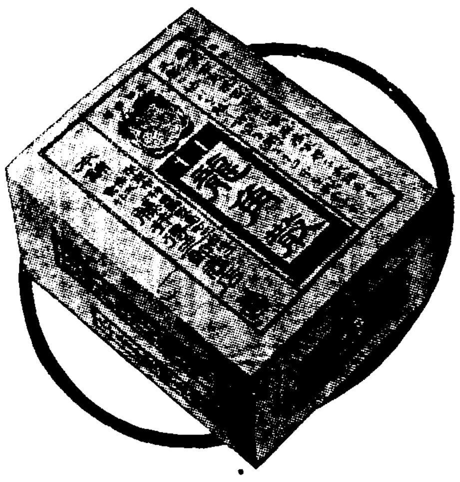
―全鮮各藥房에잇스며外國樞要都市에도잇습니다―

定價	
二百半分	二十錢
四百分	三十錢
八百分	五十錢
十八百分	一圓
四十百分	二圓
六十五百分	三圓

本舖 東京市神田區豊島町 株式會社 藤井得三郞商店

振替東京九二一番 電話浪花(86)[illegible]

龍角散의實物縮寫圖



담기침 천식

百日咳기침 流行感氣기침

祛痰―鎭咳의靈藥으로서의龍角散의効果는一般咳嗽엔勿論、천식、氣管支가다루、와어린애기의百日咳에업지못할것일뿐안니라、또한가지龍角散은日本最古의호르몬製劑로서所謂麝香精製인까닭에、全身에活力을주고、精氣가나게하며、自然히鬪病的으로治療의目的을達케하는効果가顯著합니다

主効

천식、백일해、感氣기침、氣管支가다루、呼吸困難、목쉰데、咽喉肺病기침、담기침

寫眞뉴ー스

파리氷上舞踊大會에서 [illegible] 여외다(聯合[illegible])

D10―8

大都市의府勢擴張案 (2)

大工場處處建設 釜山鎭中心으로發展

釜山府

(二) 擴張面積千三百萬坪

편입될 서면의 각동리(各洞里)는 偶巖、開琴里、堂甘里、釜岩里、草場里、陣州里、櫓夢里、凡田里、釜田里、田浦里、門峴里、牛岩里、戡蠻里、龍湖里、龍塘里、大淵里 等十六동리요 사하면(沙下面)에서는 암남리(岩南里) 한 동리를 편입할 한다고 한다.

이서면 지대에 도로 시설은 부산 동래간의 一등도로가 중앙으로 가서면에 잇고 또는 一가 통되고 기타 동외도로가 동리마다 연결되어 잇으나 앞으로 시가지 개정함에 따라서는 변경확장될 것이고 부산 동래간 전차 및 회사의 선로 역시 중앙으로 관통하야 인구가 증가하게만 된다면 장래에는 매우 편리하게 될것이다. 수도의 설비로는 현재 부산의 수원지인 성지곡(聖知谷) 수원지가 서면에 잇고 또는 양산법기리(梁山法基里) 수원지와 송수도가 서면을 관통하고 잇으니 그부근에 배수지(配水池)를

△△△ 작만하기는 용이할일이다 △△△

전등의 시설은 현재 와전회사(瓦電會社)에서 오래전부터 서면 각 촌락마다 송전망을 시설하고 잇고 대공장이 건설만 된다면 큰동력을 사용할수잇으니 확장되는 부세에 따라 더욱 전력판매에 노력할것이다.

편입될지역의 면적과 인구수는 이러하다.

◇面積 西面田九六九、○○○坪畓一、八四一、八○○坪垈地一六四、一三九坪林野八、四一七○○○坪其他七一二、七一九坪計一三、一○五、六六八坪 岩南里田七八、○○○坪畓三五、七○○坪垈地一五、三七五坪林野六九七、四四一坪其他一三、九五四四坪計八五○、三六○坪總計一三、九五

◇人口 西面朝鮮人二、三○○戶一二、八二一人日本內地人一三八戶六六一人外國人四戶八人岩南面朝鮮人一九五戶一、二一九人日本內地人三七戶一五三人計二六七四戶一四、八六三人

현재부산의 면적 二평방二九三리에 一천四백만평이 넓어지고 十八만三천에 一만四천八백명의 인구가 증가되면

▽▽▽ 약二十만을 계산할수잇다 △△△

그러고 편입지대중 서면은 대공장지대가 형성될것은 지금의 현상으로도 넉넉히 수상할수잇는데 그러케되면 부산의 중앙지대는 부산진방면이 된다.

현재서면의 중요한시설은 朝鮮移出牛檢疫所 水利組合 龍南普通學校 西面公立普通學校 私立普通學校 西面電氣出張所 朝鮮興業會社 釜山纖物工場 國產商人會棉業部 製鹽所 大、고부 醬油工場 丸新人絹 製晒場외 二十개소의 공장과 암남리에서 우여형청소(牛役畜淸所)가 부산으로온다.

편입될 지역에서 조세공과의 부담상태는 국세 지방세 면세등을 합하야 서면이 六二、九○四원 암남리 二一、○二○원으로서 암남리는 부산으로 앗기는 사하면에서는 재원(財源)이 크게감소된다고 편입을 반대하므로 부산부에서는 八백원씩 五년간사하면에 기부하야

▽▽▽ 재정적으로 원조하기결정 △△△

되어잇다. 서면의 부 지주들도 편입반대운동을 하더니 반대조건이 충분치못하엿든지 최근에는 편입을 지지하고잇다.

서편으로도 인구는 늘어가 대신정(大新町)一대도 발전을 다보게되어 그뒷산을넘어 사하면 하단(下端)방면으로 진출시키고저 하단도로 절하(切下)계획을 경남도회에서도 누사제안한바잇고 대신정, 영주정(大新町、瀛州町)간의 산을 굴착하야 세장한지행을 통할계만들라면 二백만원의 경비가 소요된다고하고 부당국에서는 도진교와 매축공사를 완성하엿으니 앞으로는 대항만시설을 계획하야 六천돈급의 연락선이 출입하면 부산진앞바다에 동양제一의 대잔교를 건설할계획도 세우고는잇다.

이상의 모든 확장계획이 순조로 진행된다면 대부산의 건설이 힘찬발걸음으로 진행될것이다.

이러케 건설된 대부산의 장차의 주인공은 누구? 일지는 장래의 일이라 알수는 없으나 주인공이 될나면무한 노력이 필요하다.

鎭南浦府도大擴張

人口四倍、面積一倍

柳沙、大頭、麻沙里等編入

新年度부터實施準備

【진남포】 소화九년도이래 진남포부 행정구역 확장문제는 거듭조사연구하여오든바 내十一년도에는 기어히 실현키제 그구체안이 작성되엇는바 즉현재진남포부의 면적이 一반八백五十七평방키로인바 이면적에 약一배반을 늘려 二만七천一백四十평방키로로 하고 유사리, 마사리, 대두리(柳沙里、麻沙里、大頭里) 등을 편입시켜인구는 현재五만에 四배를증가시켜 약二十만을 포옹할 목표로 내一년이순경에 부영정회상에 산회의를 마친다음 그편입될구역등을 실시답사할 예정이라고한다.

永興公普校 學級復活要望

【영흥】 영흥공보교(永興公普校)는 종래十四학급이든 것이 소화八년부터 十二학급으로 감축되엇기 때문에 입학지원아동이 격증하는 사세이라 일반은 한급부활을 요망하야 왓엇다. 이와같은 일반의 요망에 의하야 동교학부형회에서는 작춘부터 한급부활을 적극적으로 운동하려는 계획밑에 이미 상당의 금액까지 적립하엿을뿐만 아니라 그인접지인 복흥(福興)·덕흥(德興)·장흥(長興) 각면은 四면제 五六학년이 없는까닭에 그졸업생들을 인 영흥공보에 보결입학케하야주기를 간망하는동시에 면민들도 전과 아동들을 수용할 사건소비까지도 자신부담 하겟다고 한다는 것이다. 이에 동교학부형회에서는 금춘에는 기필코 한급부활을 기할의미로 그운동을 전개할터이라 한다.

採氷도 한창! (昨日大同江所見)

冬旱中에酷寒繼續

水道管凍破頻頻

水道係에修繕申請每日遝至

元山府民의用水難

【원산】 원산(元山)지방은 동한 冬旱은 이연계속되고 혹한과 강풍만 심하야 거리에는 사진(砂塵)이 때문에 눈을 뜰수가 없고 악성감기가 유행하야 一반은 막대한 곤난과 위험을 느끼고 잇는바 더구나 곤난한것은 기후가 파도적 혹한관계로 상수도의 수도전(水道栓)이 동결되어 파손되고 잇음이 빈번하여 저서 상수사용을 하지못하야 전시민이 큰 고통을 받고잇다한다. 요지음부청수도계에서는 매일 십여건의수도수선신청이 들어와서 대분망중이라하며 한발(旱魃)이 오래동안 계속한 관계로 저수지(貯水池)의 수량은 각각으로 감하되어 지난 九일에는 약 三분지一밖에안되여 저서 당국에서는 떡우려하고잇다 하며 앞으로 가물이 얼마동안 계속한다면 어느때 단수(斷水)하지안흐면 안될경우에 이를는지를라 매우 낭황중이라는바 一반시민에게 용수절약(用水節約)을 절대 희망한다고 한다.

平壤積雪二寸

【평양】 기다리든 눈이 十一일 오후五시경부터 사뿐 사뿐 나리어 모란대의 설경을 이룰까 하엿으나 그것은 실망, 十二일 아침에 해가 번쩍들어 평양의 적설은 겨우 二寸에 머물럿다.

正租檢査制로 二重料金負擔

安州農民에도大打擊

정조에붙고 현미에붙어

【안주】 평남 안주평야(安州平野)는 서조선에잇어서 유一한 곡창으로 도내 입석(立石)·만성(萬城)·신안주(新安州) 세곳 十여처 현미공장에서 취급하는 정조가 十여만석(石)으로 이것은 동주一대에서 소화한다는바 작년부터 전조선적으로 실시되는 정조상제검사로 인하야 조검사료가 매석 五전씩으로 되는 一반농가의 수十여 현미(玄米) 대공장에서 바대한 타격을 받는다. 현미(玄米)에도검사를하야 결국은 여잇어 정조에도 검사를 하게되는 사정을 들어본다면 안주군(安州郡) 한곳에서 二중검사를 용을 제한가격으로 배수하는게상 농민이 부담하는것이라고 한다.

慶南穀檢疑獄事件

畢竟、慶北에도飛火

부산서 형사 두명이 출장하여

大邱出張所技手도拘引

【대구】 작년十一월경 경남부산(釜山)서에서 검거에 착수한 곡물검사원(穀檢員)의 오사건은 경남각지에 十수명의 관계자를 인치하여 부산서에 유치하고 준열한 취조를 계속해오던바 그들은 검사원의 요직에 잇는것을 기화로 각지의 기수들이 연락을 취하여 가며 다액의 수뢰를 한것이 백일하에 폭로되어 수명의 미곡상인과 도회의원(道會議員)등을 검거하엿던것으로 이래 세인의 이목을 끄으러오던바인데 사건은 다시 경성(京城)방면으로 비화되어 모관청의 이원(吏員)이 수년래로 전기의 오사건에 내응된것이 탄로되어 더욱이 一반의 시청을 끄으러잇던중 十一일 부산서의 삼근(三根)·바양형사는 대구에드러와 곡물검사 대구출장소의 기수무야장평(武野長平)(假名)를 집무중에 합격하야 구인장을 보이고 즉시 부산서로 인치해갓다는데 이로인하야 사계의 관계자들에 一대충동을 주고잇다고 한다.

수바리에바치 老婆가落死

【문경】 문경읍 동개교(東開橋) 東滄橋는 목조(木造)로 가설한 지가 오래되여 지금와서는 거의 썩어 드든 장꾼이 복잡하게 이 다리를 내왕하는중 문경읍내 김씨(金氏)(六○)가 건너오다가 나무판관가는 소바리를 만나 위착한 곳에서 피신할 여가도 없이 나무난간에 바쳐서 떨어젓으므로 즉시 입원하야 응급치료를 하엿으나 三일후 마침내 사망하엿다는바 一반은 당국이 이 다리에 대한 무성의함을 비난한다고한다.

乳菓之王 松の實キャラメル

永興農業公民校開校

【영흥】 함남도당국에서는 지난례에 종래의 영흥공립농업실습학교(永興公立農業實習學校)를 폐지하고 소위반농반학(半農半學)의 농업공민교(農業公民校)를 설치할계획밑에 그준비를 진행중이라함은 이미 보한바어니와 그개교예정은 객년十一월중이엇으나 농사(農舍)급기숙사 건축이지연으로 개교기가 연기되어오든바 근자에 이르러 그준비가 완성되엇으므로 지난九일 비로소 개교하엿다는바 一반은 그장래에대하야 만흔 촉망을가지고잇다고한다.

橫領事實發露 郡屬高飛遠走

【영흥】 영흥(永興)군청에 근무중의 석곡모(石谷某)(假名)는 수일전(數日前) 그종적을 감추어버렸는데 그내용을 들어보면 그가 수년전 전임인지 고원(雇員)으로 재근시에 공금을 횡령소비한 사실이 이제에야 발로되어 그죄상 그와같이 종적을 감추엇다는데 이밖에도 불건강등비행이 잇다고 한다.

老江鎭漁港에 漁民漁獲不能

빈궁 어민이 어구없어서 當局의低資融通要望

【안주】 평남 안주해안(安州海岸) 노강진(老江鎭)은 동지방의 유一한어항으로 그역사가 깊고 앞으로 발전성이 풍부하야 평남수산당국에서도 이를 중히 정하고 재작년부터 공비十만원으로 어항축조를 시작하야 작년도에 공사를 완료시키어 되엇건만 이에 一대문제는 동어항에다 생명을 부치고잇는 어민들의 어선·신한 어항을 가젓으나 행복된 기회를 가지지 못하야 대개는 빈자이므로 어획도구등 기타자본이 없어 어획불능상태에 잇어 一반은 이에대하야 당국에서 저리자금을 어민에게 융통시키는것을 요망중이라는바 이것은 노강진 어항발전에 一대문제가 아닐수없다고한다.

咸興初雪

【함흥】 때아닌 봄과 같은 따슷한 날세가 계속되다가도 갑자기 영하四十여도에까지 혹한이 나려오는 함남 지방에는 예년보다 눈이 나리지안코 그중에도 함흥부근에는 겨울철에 들어서는 아직도 눈구경을 못하야 매우 건조하여 악성의 감기까지 유행하기 시작하야 수만환자를 내엇거니와 지난十一일밤에 금동에 들어 처음 一五가량의 강설이 잇고 十二일낮부터는 폭풍이 습래하야 혼지만장의 거리를 만들게 하엿다.

災地高敞에 饑饉者多數

◇積雪中에 一名은餓死 當局의特別救濟要望

【고창】 전북고창군 심원면(心元面)은 거년의 지독한 한재로인하야 수확개무의 전지만남아 一반이재민의 생활이 극도로 곤난한중 근일에는 적설이심할뿐아니라 기후는극한이 계속되어 동면월산리(月山里) 김공수(金公壽)(二○)는 소작답 五두락에 수확이라고는 한알도얻지못한고로 매일 매일 구걸로서 八十노친과 어린처자등 다섯식구를 연명시켜왓는데 근일에와서는 적설중에 다니며 얻은밥으로는 노친과 처자를 구원하고 자기는 三、四일간을 빗입으로 냉물에서 서처하야 기한이 극심하여 지난七일밤에 참혹한 아사를 하엿다한다. 동면대고전(高田) 만돌(萬乭) 등지에 이상과같이 아사지경에 신음하는사람이 五十여명이나된다고 반일여하한 구제책이 없으면 아사는 연속될 현상이라한다.

普校移築問題로 面民大會準備

【예천】 예천 공립보통학교(醴泉公普) 장학회(奬學會)에서는 지난 十일 오후二시부터 그학교내에서 역원회를 개최하고 항상숙제인 교사증축과 및 이축문제에 대하야 장시간 토의하엿는데 명년도 학급증가에의한 교사증축에는 一천五백원의 비용을 요하고 또 이축에는 四、五만의 금전이 필요하게 되므로 모다가 중대긴요한 문제로써 역원회에서 경솔히 결정하기 어려운 문제이며 면민대회를 개최하기로 하엿다는데 대회는 오는 十八일 오후一시 예천면사무소에서 개최하리라 한다.

書信

●安東郡 安東醫院에서는 十三日부터 四日間 貧民에게 無料施療한다고。

●安康 共濟病院 孫炳殖氏는 喉頭치푸테리아에걸려 危篤에 이른것을 洗鍊된 솜씨로 手術하야 完快시키어 父母들의 感激은 如干이 아니라고。

●蔚珍 五日 有志 同이 公會堂에서 消防組後援會를 組織。

●錦山 南二面石洞에 잇는 [illegible]氏는 [illegible] 물의 [illegible] 얻어 다가 [illegible] 非行이 [illegible] 되어 [illegible] 十年丁夫 [illegible]。

會合

◎高敞高普學父兄會發起總會 지난十日同校會議室에서開催

消息

◎金正彦氏(密陽稅務署庶務課長) 慶北乃城稅務署長榮轉人事次 本社密陽支局來訪

◎崔根瑋氏(密陽稅務署庶務課長) 新任人事次 去八日 本社密陽支局來訪

◎中西衛雄氏(府北水利組合理事) 新任人事次 去十日 本社密陽支局來訪

◎田邊梓松氏(前府北水利組合理事) 大山水利組合理事轉任人事次同上

黎明期 —(農村篇)—

張赫宙 作 鄭玄雄 畫

(10)

달밋아래 (6)

인철이는 정신이 아찔해지고가 삼이 갑갑해지어 그여시 그밑으로 뛰어 나리고 싶은 충동을느끼엇다.

그러나 그는 애써 정신을 차리고.

「마봉이. 마봉이」

하고 조금 낮게 소리를 질으며

「내다 내야 인철이다」

그는 소리에 마부는 살어남 듯 이반기며

「아이고 서방님 아니 이게 아이고 이일을……아이고……」

마부는 더 한층 미친듯이 두서 없이 짓거리며

「이 놈이 죽을 죄를 지엇십더 나으리를……」

「아버지는 어찌 됏서? 응? 아버지는 말이다」

「이놈이 죽을죄를……」

「잔 소리는 그만 두고 아버지는 어디 가셧나 응?」

「그 밑에 떠러 젓나?」

「예, 예. 이 놈이 죽을 때라……」

「머-?」

인철이는 울음석인 소리를 한 번 불으짓고

「머-?불러 보게 아버지 불러 보게」

하며 그절벽을 그냥 타고 미끄러나리려 하엿다.

「인철이 인철이」

그제야 뒤에 다처 온 동모들이 인철이의 몸을 부짭려고 달려 들엇다.

그러나 一순 인철이의 몸은 절벽에 싸힌 눈을 싹 허치며 그아래로 미끄러 나려갓다.

그것을 본 마부는 더욱 질색을 하고

「아- 아-」

하며 달려 들어 인철이의 몸을 부둥켜 안엇다.

「아버지는?」

인철이는 마부를 미칠듯이 피가 타는 눈으로 힐끗 보고 물엇다.

마부는 거기 죽은 눈펄에서 여태까지 사람을 붙으고 잇다가 뜻하지 아니한 인철이를 만나, 되려 택이 풀리는것 같앗다.

그러나 인철이의 불으지즘에 정신을 차리고,

「이 밑에 떠러젓니더. 이 밑에요」

「어-?」

인철이는 넝떠리 끝까지 달려 가서 밑을 나려다 보앗다. 인문 속에서 사람의 그림자가 희미하니 보이엇다. 엷은 빛밖에 쏘지 못하는 달이 어찌도 그리 애닯어 뵈엇을까. 그는 눈을 닦고 또 나려다 보앗다.

도포자락이 넓게 떠지고 검은 갓파 가죽신이 누은 시체옆에 다 구러저 잇엇다. 아모리 보아야 죽은 시체로 밖에는 보이지 아니하엿다.

그는 그一순 아버지에 대한 본능적 사랑을 느끼엇다.

그는 일상에 그리 그를 존중히 여기지 안튼 아버지의 특명스런 얼골을 회상할 여지도없이 그밑에 보이는 시체를 구할도리를 생각하려고 하엿다.

많은 이런 놀라 날뛰고잇는 그의 가슴을 그는 진정치 못하엿다.

아버지가 죽엇다 하는 마음으로 다시 가삼이 미친듯이 날뛰는 이엇다.

순식후에 다른길로 돌아서 나려 온 동모와 머슴들이 그의 몸을 부짭고 말뤄하엿다.

그는 정신을 차리려고 애썻다. 이런경우 가장 조흔 수를 생각해야 될것을 깨닯엇다.

「자, 이러고 잇을게 아닐세」

그는 여섯을 돌려 보며 말햇다.

부라온銀 겐고-루 ケンゴール

다되치근 은질림 만아여죽 을균림 히배리뿌 에부심도뇨

다되치완 히속 로으임죽끗 을균림 진피리드속속 은銀온라부

림질

지금까지 림질의 근본적완치요법은 세계의학계의 一大숙제가 되어잇섯는데 그동안 여러가지의 유명무실한 치림제와요법이 만이생겻스나 하나도 완전치료는되는것이없어 별다른 특별한효과를 엇지못하고 장구한시일을두고 치료를계속케되야 환자의 육체적 정신적 경제적고통은 이로헤아릴수없섯스며 더구나 위장에 고장을이르키고 악한것처 면 또다시 재발하야 고통을 주게되고 더구나 병을작고덧치게하는수가 만어서 하로라도 빨니 근치되는약과 치료법을 고대하고 갈망하여온바입니다。

빨니 근치되는 새로운 치료법의 발명

전공정립균박멸학회인 병원상 학공정립균요법이 세계에서 실시한 연간의 실험과 새로운한 실험의 연구로 그실험시사 세계의학계의 모든 학설과 치료에 광명을 보내주하시고 새로운 학설과 실제에 획기적인 의학계의 큰수제를 해결하신 분이올시다. 그러므로 무수의 보다도 제일착을 보고 빨니 근치됨다고 우리三千里江山의 환자제현들 한층더 감사의 환영을 밧고 잇는바입니다。

부라온銀·겐고-루의 다원 성치료 多元性治療力

겐고-루만이 가진수 엿는 강력한 살균력파 심 달 소입 진동작용으로 뇨도표민은 물론이요 조직심부에 속속드리 뿌리 백힌림균을 꼿꼿이 죽이며 흥집파 알음을 곳개이게하고 고름을 삭게하야 오줌이 꼿말거집으로 「림질에는 겐고-루로치료하시는것이 무엇보다도속하다」 라고 자신잇게 추천하게되는함찬증방의고합입니다

약한 방울로 단二분間이면 효험이 낫타나게됩니다

치료게에 효력공헌 본제로 치료비도 경제적

아무리 만성이시 사용함도 간편하고 속히 병의근의 뿌리를 빼버림으로 재발하시와 고통을 밧는분 한성고질로 모든치료에 별다른효과를 엇지못하시고 고통바드시는분 긍정실험하여 허망하게 하시는분은 조금주저마시고 하로밧비 시험하여보시와 접배의것을 어더주시기바랍니다。

수많은 약종 학설상으로나 실제상으로나 가장적확한치료효과를가진 본제가 치료게에 다대한공헌을 하엿다함은 모든권위잇는 전문가와지명차료계의 찬사를 밧고잇는바이오나 본제로치료하시와 단시일에 근치함으로 치료비도 무소약보다도 더 경제적이라고 감사를밧고잇는 바입니다。

本劑에는 약가는갓흐나 병중세에따라 一號(급성용) 二號(만성용) 三號(부인병용)의 구별이 잇사오며 조선국문으로 병세를 자세히 쓰시고 본보를 자라고 통지하시면 송료를 특히 부담하야 매급한 환으로도 송하여드립니다。

실험보고서·설명서무대진정

가약 보급약……一圓九十錢 二五瓦入(十七日分)……三圓八十錢 五○瓦入(卅五日分)……七圓 ……전문약방에서팜 매합니다……

東京市芝區三田四國町十三 日東製藥合名會社 振替東京一九四三番 京城 新井藥房·大和藥房 釜山 大照商藥堂

K-10

農家購買力指數 (四)

農村購買力의 改善의 跡이 顯著

新稅制 農民層는 政府의 減産計劃에 參加하야 減反指定數量을 承諾하면 政府는 該生産者에게 補償金을 給與하게되는데 減反配定率과 그에 對하야 給與하는 補償金은 다음과 갓다.

減反配定率

	一九三四年度	一九三五年度
豚	二五%	二五%
玉蜀黍	二〇	一〇
小麥	一五	一〇
棉	三五—四〇	二五
煙草	一五—三〇	三〇—三五

補償金 (單位弗)

	前年度	當年度
豚一頭	五	五
玉蜀黍一부셸	〇.三〇	〇.三五
小麥一부셸	〇.二九	—
棉一폰드	〇.〇三五	〇.〇三五
煙草一에카	三一—一三〇	—

補償金은 原則으로 現金支給하되 棉花와 煙草는 現金外에 分配者에게 對하야 一定數量의 現物購入權을 認定한다. (棉花에 對하야 現物購入權을 認定하게된 理由는 政府가 이미 多量의 在庫를 가지고잇기 때문인데 그在庫量은 二個年供給量에 該當하다고한다.) 그런데 政府의 이때문에 所要하는 經費는 相當한 巨額에 達하야 一九三四—五年度의 補償金支出額은 八億八百萬弗로 發表되엇다.

그러면 政府는 이 巨額의 補償金의 財源을 어데서 求하엿는가? 政府가 그財源으로서 特別한것은 加工稅, 補償稅, 프로—세스—이세가지인데 이것은 農務省이와 같이 A•A•A가 農民의 生活을 農民以外의 工業者消費者의 負擔으로 行하려는 根本精神을 反映한것이겟다. 加工稅라는것은 農産物의 第一次加工過程에서 現在의 農産物價格과 農産物生産者의 公正한 交換價値와의 差額을 標準으로 (農務長官이 布告로 決定) 賦課하는것인데 例하면 棉花의 境遇는 紡績業者에게서, 小麥의 境遇는 製粉業者에게서 徵收하는것이며 補償稅라는것은 加工稅의 實施로 價格이 騰貴하야 消費가 減退되는 加工業者의 販賣를 保護하기 爲하야 競爭的 商品에 賦課하는것이며 프로—아테스는 加工稅賦課以前에 잇어서 加工業者, 取扱業者의 在庫品의 價格騰貴를 補償하야 賦課하는것인데 이三者의 內容이 上述한바와 같은것이매 A•A•A計劃이 加工業者의 不滿을 사지안을수 없다는 것을 넘너이 짐작할수잇다.

A•A•A計劃은 그것에 實施됨을 따라서 米國에 어느程度의 農村景氣를 齎來하엿다는것은 不拘의 事實이겟지마는 그反面에 잇어서 農産物의 加工業者에게 큰 打擊을 주엇다는것도 不拘의 事實인것이다. A•A•A計劃의 적用下한點이 農業者는 補償金을 받게되므로 減産實施로 말미암아 總收入에잇어서 何等의 減少도 當하지안을것이오 도리어 限定量의 價格騰貴로 말미암아 增收하게된다는데에 잇느니만큼 그實施로 말미암아 農産物價格은 相當한 程度로 恢復되엇으며 農村의 現金收入도 相當한 程度로 增加하게되엇다. 農務省의 物價指數에 依하면 農産物價格은 顯著히 上昇하야 昨年四月에는 一一一, 昨年上半期 平均은 一〇八로 昂騰하야 一九三三年 二月의 約二倍이다. 勿論 그동안에 工産物價格도 相當히 騰貴하엿으므로 兩者의 比率恢復力은 멀지 減殺되겟지마는 그러타고 할지라도 昨年上半期의 平均은 八五라는地位에까지 還元되엇다. 그러고 그恢復의 程度는 各商品에 따라서 달치마는 全體로서 A•A•A의 目的은 急速히 實現되엇다고 할수잇다.

그러나 農産物價格의 騰貴比率이 農村의 實際購買力增進을 意味하는것은아니겟다. 農産物價格이 如何히 騰貴하엿다 할지라도 農産物의 販賣數量이 激減하엿다고하면 農村의 收入은 增進하지못하고말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農務省調査의 農家現金收入金額指數와 및 이것을 工産品價格指數(農村購買入品物價指數)로 除한 農村購買力指數를 보건대 顯著히 改善의 跡을 보이고 있다. 勿論 農村購買力指數는 그全部의 理由가 A•A•A計劃에만 있는것이아니고 쿠스벨트大統領이 實施하고잇는 一切의 景氣恢復政策의 綜合的結果라고 볼수잇으며 또한 自然의 暴威에依한 凶作도 무시못할수 없지마는 A•A•A政策의 成功의 結果가 그主力이 되고 잇다는것은 否定할수없을것이다.

農村現金收入指數

	A	B
一九三三年二月	三四•〇	三四•〇
一九三三年下期平均	[illegible]	[illegible]
一九三四年上期平均	[illegible]	[illegible]
一九三四年下期平均	[illegible]	[illegible]

農村購買力指數

	A	B
一九三三年二月	[illegible]	[illegible]
一九三三年下期平均	[illegible]	[illegible]
一九三四年上期平均	[illegible]	[illegible]
一九三四年下期平均	[illegible]	[illegible]

(註) A는 補償金을 除한것 B는 補償金을 包含한것。

(完)

硫安價格暴騰!

十年以來의新高價

昭和六年度보다每十貫三圓卅錢昂騰

獨占事業의弊害尤甚

[東京電話] 硫安內地肥料는 新肥期에 入하야 南滿硫安과 硫安肥料聯合會와 共同販賣方面의 實績는 意外에 好調를 持續하야 昨年以來 新規昂騰이든 硫安價格은 再次昂騰되어 昂騰을거듭하엿다 即硫安은 目下 價格內容 十貫每五圓二十錢 內外賣으로昭和二年以來의 高價를 示하고 昭和六年의 最低價時代 一圓九十錢의 低價로보면 實로三圓三十錢의 昂騰이다 그原因은

一, 各社增産計劃이 一齊히 遲延된것

一, 需要激增가 一時에 殺到하야 依然不足을 招來한것

一, 販賣高에 不拘하고 農村의 購買力充實에 依하야 高價를 負擔하고 硫安價格을 잘 認識하고잇는것

等에 依함인데 日本內地가 四百八十五萬乃至四百九十萬叭의 需要에 對하야 …

英米크로스奔騰

—一九三四年十一月以來의高價—

[大阪十一日發同盟] 英國決算 奔騰되어 四弗九十七仙半으로 一九三四年十一月以來의 高價로 騰進 米日又廿九弗十五仙으로 十四仙가량 大幅昂騰을 示하엿다

重工業運轉進出

[東京電話同盟] 日本과연라의 … 成功한 有望한 … 目下川崎車輛 日本車輛其他 各社에 製作中인바 …

京城在庫增加

昭和十年末現在의 京城府內 六營業倉庫 在庫數量은 十一萬五千二百六十四個 二百九十萬八千 … 前年末에 比하야 …

米倉在米 百一萬餘石

米倉會社의 十二日現在 在庫高는 百一萬三千七百六十石으로 前月에比하야 三十八萬四千八百六十石의增加이다(單位石)

釜山	二二三、〇三〇
馬山	二八、七七二
麗水	一八、六九二
木浦	一〇六、九四三
群山	三二八、二七一
江景	三一、八七五
仁川	三一八、九九〇
鎭南浦	二五〇、二七八
元山	六、八五五

仁川在米增加

[仁川] 本月十二日現在 仁川市內在庫米는 左記와如히 合計米二六、六一七叺의增加하엿다

玄米 叺 一七九、五三〇叺

滿洲國幣의 統一實現困難

◇하르빈市엔朝鮮券流通

[하르빈十一日發同盟] 滿洲國幣統一國幣一元化問題에 對하야는 이미 昨年 그根本方針이 樹立되고 朝鮮銀行의 業務를 定成되고 … 何等顯著한 動向을 示치안고 … 滿洲國의 … 方針은 …

中小工業保護의 積極策을講究!

內閣調査局逐着手

[東京電話同盟] 日本의 中小工業問題는 單只社會的問題로 보아서 뿐이 아니고 經濟的으로 …

國民政府—

外銀에도爲替管理

[上海十二日發電通] 幣制改革後 이 爲替安定委員會에서는 …

京城商議豫算 十二萬圓內外

京城商議 昭和十二年度 歲出入豫算은 十二日로써 終了하고 …

特産出廻旺盛

輸送量新記錄

[大連十一日發同盟] 十日의 滿鐵特産出廻 …

大豆	一五、九六七
高粱	一、二二一
(豆粕)	一、〇〇九
其他	六、〇三七
其他	五二、五七二
總計	七六、七九六

從來의 記錄 昨年十二月二十一日의 七萬五千百十五키로噸 使用한 貨車 二千五百八十車를突破하기 … 二千六百八十一車이다

內閣調査局이 直接調査開始

十四日에關係者協議

移管된米生産費問題

[東京電話同盟] 外地米生産費는 務省으로 그調査는 一方的으로 調査는 作年內閣에 設置된米穀生産費調査會에서 …

任期滿了된 東銀閔頭取

그進退가注目

東一銀行頭取閔大植氏는 今期로써 任期滿了가 되는 바이에 依하야 그 進退如何는 자못 注目되는바잇는데 …

◇…高麗發電工場事務所決定 ≡日本高周波重工業會社京城本社 假事務所는 南大門通 東京火災會社 二階日本母本社內에 …

今日의市況

※ 十一月十三日 ※

株式 (單位十錢)	後場	前日比較
東新	[illegible]	[illegible]
期米 (單位圓)		
正租	[illegible]	[illegible]
正米 (三等單位)		
京城	[illegible]	[illegible]
仁川	[illegible]	[illegible]
商品 (單位十錢)		
綿絲	[illegible]	[illegible]
人絹	[illegible]	[illegible]
砂糖	[illegible]	[illegible]

計數機

▽新記錄을 보이게 된…

▽十貫當에 五圓을 넘고도 二三十錢을 … —農民의손해기가 자연 또 幾十錢을 더하리니

▽昭和二年以後 十年만의 新記錄이오 昭和六年度에 比하야 十貫當에 二圓臺라니

▽理由는 供給不足 需要急增 農村의景氣好轉이라고 云云하는데

▽農村의景氣是 眞實한 意味에서 …

▽東京硫安價는 四五十錢이나 低下된時勢를 保持하고서도 도리어 朝鮮으로 注文하다하니 그것은 어떠케된셈?

▽아직못캐리 어것을 말하야 獨占의 横暴라하고 獨占事業에는 弊害가 잇다는것이야!

時勢와市況

株式 商狀

反弛

前場伸悩

騰勢一息

新規强材待

朝取短期後場步調

後場低落

後場奔騰

群衆더욱買慕

米★豆★餘★墨

實收發表까지

當分反落無望

財◇海◇餘◇波

實物賣買價前場

期米

後場다시强調

前場伸悩

本格的買時期

世界軍擴파

內外金銀時勢

(十一月十三日)

海外金塊 (十一日)

◎倫敦金塊 一온스 七磅十一片

海外經濟

正米各地商況

京城上放

仁川昂進

群山强調

木浦强化

釜山昂化

大邱昂騰

[illegible]